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뚝뚝 뭉친 한 마을 이야기



신속하게  
신중하게



상세하게  
그리고



사랑이야



성남시

## 인터뷰:글 김중배

연합뉴스/연합뉴스TV 기자(2003~2020)를 거쳐  
미디어 혁신을 고민하는 독립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화두와 가치를 탐구하며  
알리는 일에 도전하고 있다.

## 그림 유천

문화방송 14년차 프로듀서  
편성, 예능을 거쳐 라디오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너희는 활이요, 그 활에서  
너희의 아이들은  
화살처럼 날아간다

칼릴 지브란의 시 「아이들에 대하여」 중에서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뚝뚝 뭉친 한 마을 이야기

신속하게  
신중하게  
상세하게  
그리고  
사랑이야

성남시

## ‘아동학대’에 대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너희의 아이는 너희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이니.

저들은 너희를 거쳐서 왔을 뿐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또 저들이 너희와 함께 있기는 하나 너희의 소유는 아니다.

너희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너희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으므로...

너희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저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다. 너희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도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너희가 아이들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너희같이 만들려 애쓰진 말라.  
생명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제에 머무는 법이 없으므로...

너희는 활이요, 그 활에서 너희의 아이들은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래서 활 쏘는 이가 무한의 길에 놓인 과녁을 겨누고,  
그 화살이 빠르고 멀리 나가도록 온 힘을 다하여 너희를  
당겨 구부리는 것이다.

너희는 활 쏘는 이의 손에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듯이 또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나니.

..칼릴 지브란의 시, 「아이들에 대하여」

이 책은 우리 사회 저변에 여전히 존재하는 ‘불편한 진실’인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성남시에서 기획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는 성남시는 그간 아동수당플러스,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비롯, 다양한 아동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앞서 2020년 펴낸 『부모용 아동학대 자가점검 및 사례 중심 책자』에 이어 일반 시민들이 보다 편하고 알기 쉽게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에세이’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인터뷰, 집필을 시작하는 저에게,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윤석현 관장님이 칼릴 지브란의 시 「아이들에 대하여」를 건넸습니다. 시는 양육과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관해 음미할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글을 준비하고 집필하는 과정 내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구체화될 때마다 불편



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으레 체벌을 당연하게 여겨온 건, 저 또한 어린 시절 맞고 자란 기억이 뚜렷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 그리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에,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에도 많은 괴리와 이질감을 느낍니다. 부모님은 거의 매를 드시지 않았으나, 학교 환경은 달랐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시 뭉둥이 하나씩은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교과서 암송이나 문제 풀이 때마다 과제를 제대로 해오지 못한 아이들은 여지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사랑의 매’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를 가르면서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의 행동이나 상황을 볼 때마다 체벌의 유혹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때로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뉘우칩니다. 결국 체벌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이를 상대로 한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 성남이 부모님들의 마음공부를 위한 책을 펴내게 된 이유입니

다. 아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훈육의 행위가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나아가 가정의 위기로 번지게 되는 악순환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잊혀질 만하면 불거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학대 행위가 방지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보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대응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스스로의 경험으로 익히지 못한 인권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쉽지 않은 양육의 일상을 겪다 보면 누구나 ‘학대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수양과 공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이는 거울 속 부모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아이를 존중하고, 솔선수범으로 아이를 이끌 때 아이는 비로소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닮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양육의 문제는 우리 인격 수양의 문제요, 자기와의 싸움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그 대응 시스템의 변화를 이해하고 각 유형별 사례와 올바른 대응법에 대해 살펴

볼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때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책에 되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유형을 담아보려 노력하였으나 동시에 누구에게도 불의의 피해와 고통이 전가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면서 각자의 일상 속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되 상처를 과해치기보다 실질적인 처방과 구체적인 대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을 접하는 모두가 몰랐던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 이웃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우리가 사랑으로 낳은 아이와 그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구조적, 사회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적

극적으로 그 실상과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생각을 바  
꾸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배움의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 목 차

‘아동학대’에 대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4
-----------------------------	---

<b>‘사랑의 매’ 같은 건 없다</b>	<b>15</b>
------------------------	-----------

‘아동징계권’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26
---------------------	----

‘학대의 대물림’,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35
-------------------------	----

부모의 욕망이 학대의 출발이 될 때	43
---------------------	----

아동학대를 없앨 4가지 열쇳말: 신속하게, 신중하게, 상세하게 그리고 사랑이야!	50
---	----

아동학대 대응에 앞장선 성남시 전담공무원과의 인터뷰	55
---------------------------------	----

<b>신속하게</b>	<b>65</b>
-------------	-----------

죽어야만 비로소 깨닫는 어른들	71
------------------	----

유능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76
----------------	----

치벌받지 않는 어른들	84
-------------	----

학대아동은 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92
--------------------	----

## 신중하게 105

어른다운 어른들 112

무엇 하나 빠짐없이 신중하게 130

## 상세하게 143

우리는 혹시 ‘어쩌다 어른’이 아닐까요 150

자칫 빠져들기 쉬운 정서적 학대의 함정 162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학대 예방 지침 175

민간 전문가 굿네이버스 경기구리남양주

서태원 지부장과와의 인터뷰 195

## 그리고 사랑이야 203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주세요 209

‘사랑의 매’는 없지만, ‘사랑의 힘’은 있다 221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229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부모님들께 전하는 편지 238

나는 어떤 부모일까? 242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연락처 249

아동학대 사건처리 관련 용어 253





# ‘사랑의 매’ 같은 건 없다



아동학대 개념의 정의, 제도 연혁과

현황을 이해하고, 학대에 대응하는 기본 태도 및

기초 지식을 배운다.



엄격한 규율과 체벌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운다는 생각이 하나의 사회 규범으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보호자 없이 아이를 방치하는 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곤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법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체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관은 그에게 아래와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훈육의 목적으로 하는 경미한 체벌도 안 됩니까?” (판사)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이를 듣는 판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이 몇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또 달라졌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체벌한 뒤 아이의 신고로 출동



(판사)

“훈육의 목적으로 하는  
경미한 체벌도 안 됩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듣는 ‘판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세상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우리  
부모들의 인식은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몰랐다. 부모님께 맞으면서 컸고, 당연한 줄로만 알았  
다. 아동학대인 줄 알았다면 나도 때리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 내 아이를 사랑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부  
모이다.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달라진 제도와 현실이  
잘 알려지면 좋겠다. 그런 책자가 있다면 법적인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쉬웠으면 좋겠다.”

최근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아동학대 사건  
의 가해 보호자와 면담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추해보면,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의 진전 속도가 기성세대의 관행 및 인식을 훌쩍 뛰  
어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의 변화가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  
각에서는 “피해아동들의 피를 먹고 자란 제도”란 말까  
지 있습니다. 사회의 고정관념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극



단적이고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때마다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어 나갔고,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에게 투표권이 없기에 권리 보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리 보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움직일 수 없이 분명한 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 **아동학대 대응 체계 변화**

- 2000년 7월 아동학대 대응 체계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 2014년 9월 가중처벌 등 신설 (아동학대 처벌법 제정)
- 2020년 4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신설 (아동복지법 등 개정)
- 2021년 1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삭제 (민권 개정)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건 불과 20년 전입니다. 제도의 변화와 함께 많은 사람의 인식과 대응도 달라지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기, 전환의 시대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던 부모가 아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난감해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목격됩니다.

단적으로 2021년부터 민법에서 보장하던 부모의 징계권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건 이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양육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혼란스러우시다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양육의 과정에서 아이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야 할 때 익숙한 체벌의 방식에 기대지 않으려면 확고한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스스로 훈육의 방식에 있어 오락가락한다면 아이 또한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선 몇 가지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아동학대는 이제 사회적 범죄이며 처벌의 대상이라는 인식과 관행의 전환입니다.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면 개입의 권한을 갖는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와 아동 간 분리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친권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옛날 기준으로



아이에 대한 체벌을 답습한다면 언제든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선 아동학대 사례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고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점점 더 자리 잡아 갈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교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일부 직종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되어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문화의 정착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환경입니다. 이제 아동학대 문제는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척결해야 할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대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둘째, 아동학대 대응은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구호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의 정상화와 복원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의 성격을 지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의 80%가량 가해자는 친부모라고 합니



아동보호는  
사회전체가 함께  
증여야 할 일입니다.



다. 피해 아동에게 그 부모와 가정은 고통과 트라우마의 제공자이면서 고통의 현장입니다. 사례 종결의 최선은 ‘원가정 복원’이기에, 우리는 원천적인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가해자인 부모는 말 그대로 ‘애증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당사자가 겪어야 할 고통과 복합적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자극적인 언론 보도, 또 그에 편승하는 대중의 관심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2차 피해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추적 보도가 사회적 관심과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변화의 동력이 된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대행위라는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춰 분노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 차분하게 문제의 원인과 처방을 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셋째, 아동학대 각 사례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면, 개인의 성격과 관계 외에도 여러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학대가 발생한 원인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어느 하나의 처방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접

어야 합니다. 부모 스스로 감당 못 할 사회적 부담이 따른다면 적절한 부조와 복지 제공 등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조성된 인간관계와 성격의 문제, 나아가 사회 구조의 문제까지 그 해결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걸림돌과 한계들이 작용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개별 가정에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모두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 ‘아동징계권’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미성년인 아동들에게도 엄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를 잘 담아낸 것이 유엔이 제정한 아동의 기본 권리 및 원칙입니다. 그 4대 권리란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입니다. 우리나라도 1991년 이에 가입하였습니다.

### 아동의 4대 기본 권리

1989년 유엔UN은 전 세계 196개국 만장일치로 아동의 기본

권리와 기본 원칙을 채택하였다.

- 생존권 : 아이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뜻한다. 아이들은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며 아플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보호권 : 아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뜻한다. 유해환경이라 함은 학대와 차별, 착취 등이 자행되는 환경이다.
- 발달권 : 아이들이 스스로 가지고 태어난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각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과 다양한 문화생활 보장이 그것이다.
- 참여권 : 아이들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 각자가 이 같은 기본권을 누리면서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하겠죠. 하지만 살다 보면 맞닥뜨려지지 않을



수 없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그렇습니다.

다들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동을 학대할 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콩쥐와 팥쥐> 전래동화에서 보듯이 아동학대는 계모와 계부 등에 의해 이뤄지리란 통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제 아동학대 사례의 80% 정도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나 현실이기에 마주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이 정의하는 아동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정인이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상상하기 힘든 충격이 가해져야 가능한 장기 파열로 인해 숨졌습니다. 학대행

위는 입양 이후 9개월 내내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번의 신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아이를 살릴 기회였지만, 우리 사회는 정인이에게서 발견된 학대의 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주검 앞에 모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모여 민법 개정안이 2021년 1월 통과되었습니다. 부모의 징계권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은 아이들이 흘린 피를 먹으며 자라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부인하기도 쉽지 않은 말이라 더욱 가슴 아프게 합니다.

“징계권 없어진 걸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의 매’를 기억하는 이들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뒤늦게 자신의 체벌 등에 대해 후회하게 되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또 어떤 이들은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요구 때문에 학대의 악순환에 빠져듭니다. 보호자로서의 의무보다 부모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한 이들도 있습니다. 간혹 빗나간 성적 욕망이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기도 합니다.

### 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

- 신체적 학대 : 아동에게 손, 발 또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
- 정서적 학대 : 아동의 인성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가학적 행위 등을 지칭.
- 성 학대 : 성인이나 다른 아동이 성적인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성적 행위.
- 방임행위 :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사회적 조건이나 가정의



어떤 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또 어떤 이들은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요구 때문에  
학대의 악순환에 빠져듭니다.

유형이 있을까요? 많은 연구가 빈곤과 가정 내 불화, 사회  
회적 안전망 결여 등 요인이 아동학대행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의 중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취약  
가정에는 흔히 한부모, 조손, 이혼, 재혼, 다문화, 새터  
민, 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이들 가  
정에서 더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방임의 경우 소득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기타 학대행위와  
관련해서는 모든 소득계층의 아이들이 동일하게 학대 위  
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  
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처함은 우리 사회에 내재하는 폭력성  
의 근원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  
는 내밀한 정서 발달의 과정에 축적된 치유될 수 없는 상  
처는 그대로 후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폭  
력의 대물림이란 말이 그 끔찍한 현실을 지칭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을 파고들어야 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아동 시기에 각인된 기억과 경험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이 문제를 방임한다면 스스로 방임, 부작위의 범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할 때입니다.

## ‘학대의 대물림’,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는 여전히 아이들의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매’란 말에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는 통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신체적 체벌도 이제는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는 매우 위중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자라나는 아이에게서 미래를 빼앗고 사회의 근간과 도덕 규범을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2014년 만들어진 아동학대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학대 정도가 심각할 경우 친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 당시 친모와 친부를 살해한 뒤 토막 내 유기한 24세 대학생 L씨의 범행이 드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명문 Y대를 다닌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면엔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의 오랜 학대와 억압이 있었습니다.

“집에 거의 없는 무뚝뚝한 아버지와 히스테릭한 어머니 밑에서 그야말로 한순간도 눈치 보지 않은 적이 없다. 유치원 시절에도 문방구에서 장난감을 고를 때 무작정 쓴 것 고르느라고 정작 사고 싶은 건 입 밖에도 못 냈다. 초등학교 시절엔 어머니의 히스테리 속에서 수없이 혼나고 두들겨 맞았다. 중학교 땐 절정에 이르러 거의 쓰레기 같은 자식 취급을 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눈치를 보며 감정을 속이는 법을 배웠다. 중3 때까지 계속 자살을 생각했다.”

L씨가 사건 발생 3년 전, 과거를 회상하며 썼던 일기의 내용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 범죄였지만, 많은 사람이 L씨가 자라난 환경과 처지에 대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같은 호의적 시선에서 출발한 한 심리학자는 그의 일기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저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와의 소송 등 이유로 지금은 절판된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입니다.

그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살해 동기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구박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때리고 나서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다.”  
“떨시와 형제 간 차별하는 부모를 내 인생의 방해자라고  
생각하여 범행했다.”

형제 둘은 부모로부터 똑같이 성적 등을 이유로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L씨의 형은 일찌감치 가족과의 결



별을 선택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울 즈음, 그의 형이 “동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발언은 또 한 차례 큰 파문을 불렀습니다.

L씨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군인, 어머니도 서울의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부모 또한 조부모의 오랜 학대를 받아온 가정환경 이력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버지의 지위와 봉급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그 불만은 고스란히 형제에 대한 꾸지람과 비난으로 전가됐습니다. 아버지 또한 집에 머무를 때에는 형제를 강압적으로 다루고 체벌하곤 했습니다.

패륜 범죄를 저지른 L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1심은 사형.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L씨의 범행은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부도덕한 것이지만 정신감정, 심리분석 결과와 성장 과정을 종합해보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 피해의식 등으로 인해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2심 법원 판결)





출발점은 깨달음입니다.  
내가 무심코 빠져들게 되는  
학대가 바로 나 자신이  
그토록 끔찍이 혐오했던  
아픈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됐음을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대의 대물림’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으로 귀결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사회를 뿌리깊게 장악해온 ‘폭력의 제도화’가 미치는 폐해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70년대 출생 이전 세대는 고등학교에서 교련 수업을 받고 제식 훈련과 총검술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선 훈육을 명분으로 매질과 집단 열차려 등 체벌이 일상적이었습니다. 폭력을 당한 쪽도, 폭력을 행사한 쪽도 힘과 권위에의 복종을 내재화하게 됩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어 흥행한 드라마 <D.P.>가 있습니다. 군대 병영 내에서 벌어지는 선임의 일상적 폭력이 어떠한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 사건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력이 또다시 폭력을 부르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그 출발점은 깨달음입니다. 내가 무심코 빠져들게 되는 학대가 바로 나 자신이 그토록 끔찍이 혐오했던 아픈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됐음을 자각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고 상처를 주는 순간, 일단 굴러가면 멈추기 힘든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 부모의 욕망이 학대의 출발이 될 때

많은 아동학대 사례가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부모 간의 불화 등 외적 문제와 환경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그런데 학대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에도 부모의 욕심이나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적지 않은 학대 피해가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바람이나 욕망의 투영은 자녀의 자아를 억압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가로막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같은 그릇된 부모의 욕망을 정면에서 다뤄 사회적으로도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가 2018년 JTBC에서 방영된 <SKY 캐슬>입니다.



3대째 의사 가문을 꿈꾸는 집안. 박영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울의대에 합격하지만, 그간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의 경험을 이기지 못하고 부모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지옥에서 살기 싫어. 당신 아들로 사는 게 지옥이었으니까.”

그 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정은 파탄에 이릅니다.

이 드라마는 이른바 ‘입시 코디네이터’의 존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교육자가 아닌 입시 전문가라 말하는 김주영. 그는 학대받은 아이의 분노마저 학업 성적 향상의 동기 부여로 활용합니다. 수단이야 어떻든 무조건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야 한다는 사회적 욕망을 매우 효과적으로 그려냈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비뚤어진 부모의 욕망을 자식에게 강요하고 억압했던 사례는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2011년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사는 고3 A군이 친모

다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B씨를 흥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존속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해의 동기는 B씨의 오랜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있었습니다. A군은 어렸을 때부터 B씨로부터 “○○법대를 가라”, “전국 1등을 해야 한다”는 강요와 억압을 일상적으로 들었습니다. B씨는 A군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거나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 도구를 가리지 않고 때리는 등 폭행 수준의 처벌을 가했습니다.

A군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16시간을 공부하는 등 B씨의 요구를 대체로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 토익TOEIC 점수가 900점, 중학교 때 전국 석차 4,500등에 들 정도로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B씨는 편부 슬하에서 자라 성공에 대한 자의식이 강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고, 사건이 발생하기 5년 전 남편과 별거하고 이혼 소송을 밝게 되었습니다.

결국 A군은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점점 거세지는 엄마의 학대 수위를 견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후 A군의 고모는 언론에 “조카가 ‘엄마한테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이들을 굶기고 잠을 안 재우니 ‘엄마가 없어야 내가 산다’고 순간적으로 비정상적 생각을 한 것 같다”며 “조카에게 엄마는 거역할 수 없는 존재였다. 교육열이 강한 줄만 알았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이의 미래라는 실존적 문제에 대해 부모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고민하는 이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강요하곤 합니다. 그게 옳다고 믿으려 합니다. 아이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눈물 흘리면서도 ‘너를 위해서야’라고 약해지는 자신을 다독입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선불리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과 함께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이의 의사를 무시한 부모의 독단적인 결정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말이죠.

학업 문제에 관해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마



아이의 의사를 무시한  
부모의 독단적인 결정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말이죠.

음은 대부분 같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대학 진학 시기가 다가올수록 부모들은 현실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 된다는 건 때로 아이들에게 반교육적인 서열의 격차를 내면화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가 대학 입시를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북돋워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적과 서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그 자체로 교육적이지 않으며 부모-자녀 간 일방적 관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를 없앨 4가지 열쇳말: 신속하게, 신중하게, 상세하게 그리고 사랑이야!

지금까지 우리는 아동과 아동학대의 이해, 그 문제의 심각성, 나아가 아동을 대하는 올바른 관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어지러이 얹힌 실타래임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의 의지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투영하려는 태도는 옳바르지 않은 것임을 우선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이와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잘못 껴맨 단추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이기에 앞서 정상적 가정의 붕괴라는 사회적 현상, 구조적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바라보거나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또한 유연해져야 합니다. 눈앞의 시급한 문제에 대해선 즉각적인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면서 근원적인 처방을 실천에 옮기는 일 또한 게을리할 수 없겠죠.

이 책에서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의 지향점을 담은 4가지 열쇳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현실 인식과 대응의 방법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바로 ‘신속하게’, ‘신중하게’, ‘상세하게’, 그리고 ‘사랑이야!’입니다.

‘신속하게’의 원칙은 학대 발생 시 생기는 부정적 파급 효과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즉각적으로 분리,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대응 시스템을 강화함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 민간 아동 보호시설 및 관계자의 노력만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또한 유능해져야  
합니다.

눈앞의 시급한  
문제에 대해선  
즉각적인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론 아동학대 사례 발견과 보호조치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아동학대가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혹시 내 주변에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내 일처럼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의 징후와 신고 방법, 대응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아동학대의 유형을 이해하고 자신도 그러한 학대에 빠져들지 않도록 성찰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신중하계’의 원칙은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가정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됨을 이해하여 처벌 중심의 즉각적이고 물리적 대응 외에 가정의 치유와 복원에도 무게를 두는 접근입니다.

아동학대 문제의 복잡성은, 부모 등 보호자들이 가해자인 동시에 아동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언론 보도 관행에 대해 우리는 문제의식을 키워



나가고 경계해야 합니다.

‘상세하게’의 원칙은 복잡한 아동학대 문제의 유형과 그 원인을 이해한 뒤, 각각의 사례에 맞게 올바른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세심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마치 복잡계 현상처럼 다양하고 포괄적인 원인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생계유지의 어려움, 부모의 경험과 지식 부족, 성격, 그릇된 아동관이나 지나친 기대 등, 사례마다 유형이 다를 수밖에 없어 치유와 복원의 길도 제각각이어야 합니다.

‘사랑이야!’는 마법의 어휘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때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아스의 매듭이라는 난제를 단칼에 베어버렸듯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로 하는 처방이 바로 ‘사랑’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아들, 딸들 어느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 기회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 아동학대 대응에 앞장선

### 성남시 전담공무원과의 인터뷰

아동학대, 더 이상 개인과 가족 내 문제일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2020년 10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시청 내에 4명의 아동학대 전담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은수미 현 시장 이하 시 공무원들, 그리고 성남 시민들의 아동학대 추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모여 이뤄진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물론 시련과 시행착오가 뒤따랐습니다. “내 아이 잘 되라고 내가 훈육하는 것인데, 왜 국가가 간섭하는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겪는 현장은 과도기입니다. 학대당한 아이를 즉각 분리하는 강제 조치에 나설 때마



다 초긴장 속에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학대 신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조사 또한 일과 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들의 고충 토로가 잇따랐고, 초기 직원 가운데 1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디게 갈지언정 되돌아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성남시는 2021년 7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학대 조사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더 이상 체벌 안된다는 점 적극 홍보해야”

강수희(성남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 ‘정인이 사건’ 이후 학대받는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

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졌고,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과 함께 개입하여 조사와 사례 판단 등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전국적으로 아동보호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 조금 일찍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달 동안 일하다 보니 우리 사회가 과도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맞고 자란 세대잖아요. 저희 팀원들에게 물어봐도 다 맞고 자랐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잘못했어도 부모들이 나를 때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세대 간의 충돌로 빚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신고 접수가 되는 사례 가운데 70~80%는 부모가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사례인 경우가 많아요. 올해 1월부터 민법상의 징계권 조항이 없어져 법률상으로는 체벌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직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부터는 자녀를 양육할 때 체벌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적



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됐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양육을 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잘 키우고 싶어도,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아이들을 접하게 되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이들에게 매를 대지 않고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 “공공 대응 시스템, 처벌보다 가정의 회복 돕는 역할”

김호현(성남시 아동보육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지금은 시청에서 나와서 협조를 요청하면 대부분 응하시지만 여전히 가정 내의 일인데 왜 관에서 개입하느냐 반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흔쾌히 협조하고 조사와 사례 관리에도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경에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시설을 가고 싶다, 부모한테 학대받고 있다고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경우는 요즈음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바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후군<sup>ADHD</sup>을 겪는 아이와 부모와의 갈등 사례입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때로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아이들도 있고요. 게임중독 같은 현상이 부가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사례의 부모님 경우 아이에 대해 수 년째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면서 제대로 가르치려는 노력을 해오시다 가 순간적으로 폭발한 거였어요. 부모님도 매를 대신 안 된다는 자각을 하고 있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매를 드신 거죠. 아이가 스스로 감정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밖에 나와 직접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긴급하게 분리를 해야 하는데, 당시 우리 관내엔 남자아이를 수용할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었어요. 인근 다른 지역의 쉼터를 겨우 물색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시설에서 ADHD 심리 치료 등을 받으면서 시설 근처의 학교로 전학하여 9개월간 생활하였죠. 이후 부모님은 자책과 자각을 하시면서 교육과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좋은 태도를 보이셨고요. 감정 소진을 덜 하고 아



이를 양육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배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 지난 뒤 부모나 아이 모두 서로 합칠 수  
있겠다는 의사를 보여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거친 뒤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ADHD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고충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어요. 부모님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또 실제 양육의 기술에 대해 알려드리  
는 역할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  
다. 원가정으로 복귀한 뒤 가정이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  
될 수 있게 되는데 기여했다는 보람도 컸죠.

아이의 경우 한때 시설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시설  
에 계신 분들도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고 돌봐주셔서 위  
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아동 본인과 부모님은 물  
론, 시청과 쉽터 모두 삼박자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공  
공화를 통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아이들 스스로 학대에 대한 인식 높고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

박훈기(아동학대전담공무원)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양육을 하는 데 주위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불화를 겪는 부부의 경우, 그 싸움이 아이한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아동의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 저희가 조사를 나가 보면 여전히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돼요. ‘이게 어떻게 학대냐’라고 따지고 묻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 등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요즘 아이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있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부모님들이 너무 심하게 정서적으로 아이를 괴롭힌 사례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한테 “내 목을 졸라라”, “이러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등 부모가 겪고 있는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런 학대가 계속되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문제를 겪게 돼요.



## “틀어진 부모-자녀 관계 회복할 프로그램도 제공”

---

오은경(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요즘 사춘기 자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에 이르는 시기에 아이들은 부모와 휴대전화 사용 등 미디어를 둘러싼 갈등과 싸움을 많이 벌이잖아요? 부모가 아이에 대한 훈계를 넘어 체벌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해진 아이는 이를 거부하죠. 그렇게 마찰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런 사례로 보호자 한 분의 신고가 들어온 경우였는데, 다른 보호자와 아이는 상담을 거부했어요. 가정방문을 가게 될 때 저희 입장에서는 꼭 만나야 해서 연락을 취하는데 가정 내에선 이를 반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토요일이든 업무 외 시간이든 가정에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밤 8시에 오라 하면 그때 가야 하고, 토요일에 와달라 하면 또 그렇게 해야죠. 그때에도 그렇게 해서 조사를 나가게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상담하고 나니 가족 구성원 모두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춘기인 아이도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줬으



면 좋겠다”고 속내를 어느 정도 드러냈어요.

이 사례의 경우 경찰은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며 사건을 종결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놔두면 가족 간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죠.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요청을 검토하고 있어요.

아동학대 조사와 상담을 하게 될 때 경계하고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 조금 마음 문을 열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관리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기회가 있거든요. 문제를 키워 더 큰 학대로 비화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신속하게

아동학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공적 대응  
체계를 통한 구제의 시급성을 이해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 지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2014년 4월 16일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했습니다. 모두 떠들썩하게 사회 곳곳의 안전망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만들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성장을 우선하며 등한시했던 안전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양부모의 9개월간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실상에 보통의 부모들은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도외시하거나 방조하고 눈감을 수 없다는 자각과 자성이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통절한 분노와 안타까움의 심경은 고스란히 우리 기성세대 뒹뒹합니다. 5월 25일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1차 신고, 6월 29일 차량에 방치된 정인이를 본 이웃의 2차 신고, 그리고 9월 23일 정인이를 살폈던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3차 신고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정인이는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분리 없이 방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

통절한 분노와 안타까움의 심경은  
고스란히 우리 기성세대 뒹뒹입니다.

되고 말았습니다.

“아동학대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신고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히 말씀드렸어요, 분리가 돼야 할 거라고요.” (2020년 9월 23일 정인이 사건 3차 신고자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잇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대응의 책임이 드러난 경찰은 뒤서리를 맞았습니다. 5명의 학대예방경찰관 등 담당자들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경찰청장의 대국민 사과와 양천서장 대기 발령 등 징계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내걸며 전면적인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강화에 나섰습니다. 2021년 1월 현장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래 연말까지 전국 시군구에 전담공무원 664명 배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전담요원도 2022년까지 700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40개소로,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20개소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우리 사회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는 진단입니다. 당장 공공화와 전담 인력 확충 노력, 그리고 사회 저변의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선 인력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시스템 변화 이후 각자의 역할 분담 등이 제대로 정착하기까지 혼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단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도기를 맞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주변을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피해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징후를 잘 이해하고, 의심되는 상황을 접할 때 용기 있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높아질 때, 우리 주변에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어린 생명들이 채 피지도 못한 채 시들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변화를 이해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 필



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아동학대의 사회적 성격과 변화하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실상,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들의 징후와 특징을 이해하고 그러한 피해아동을 발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죽어야만 비로소

## 깨닫는 어른들

1998년 경기도 의왕에서 생부와 계모가 남매를 학대하여 누나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영훈이 남매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다섯 살이던 영훈이와 살해당한 일곱 살 누나는 극도의 영양결핍 상태에 등에 다리미 자국 화상을 입는 등 끔찍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어 1999년 세상을 요란법석하게 했던 ‘김신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홉 살이던 신애는 소아암 월름즈종양 진단을 받았으나 신앙의 힘으로 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부모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없었고, 끝내 2002년 사망했습니다.

부모는 당시 취재진과 교회 목사님의 설득마저 묵살한 채 아이를 병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상 체중의 4분의 1인 5kg까지 빠져 뼈만 남은 채 “아프다, 치료받고 싶다”고 호소하는 신애의 모습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으나 사람들의 공분은 신애를 살리는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 두 사건은 1999년 말,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 행위, 신고 의무와 절차, 전담기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입법이 이뤄지도록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전기는 2013년에 찾아옵니다.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잇따라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다시 아동학대 문제를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이 들끓게 된 겁니다.

울산 계모 사건의 경우 사망한 서현 양이 2011년 포항에 거주할 당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해 분리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제도 한계 때문에 무산된 일이 널리 공론화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프다, 치료받고 싶다”고  
호소하는 신애의 모습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으나  
사람들의 공분은 신애를 살리는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모여 2014년에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중상해 등에 대한 가중처벌과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이 또다시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끔찍한 학대의 실상이 알려질 때마다 세상은 분노하지만 그때뿐, 제도와 관행, 사람들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20년 전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당시에 비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허망하게 피지도 못한 채 스러져간 아이들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 유능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2019년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화’ 기조를 세웠으며 2020년 10월부터 본격적인 공공화 전환에 나서게 됩니다.

개편 전에는 민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치료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각 시·군·구에 전담공무원을 두고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기존 아동보

호전문기관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 관리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역할을 나눴습니다. 가해 주체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 또 유관 기관과의 협조가 쉽지 않은 점 등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이 고려됐습니다.

개편된 체제하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조사, 응급 보호, 피해아동 및 가족,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 업무를 맡습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원은 피해아동 가족 학대행위자 상담과 치료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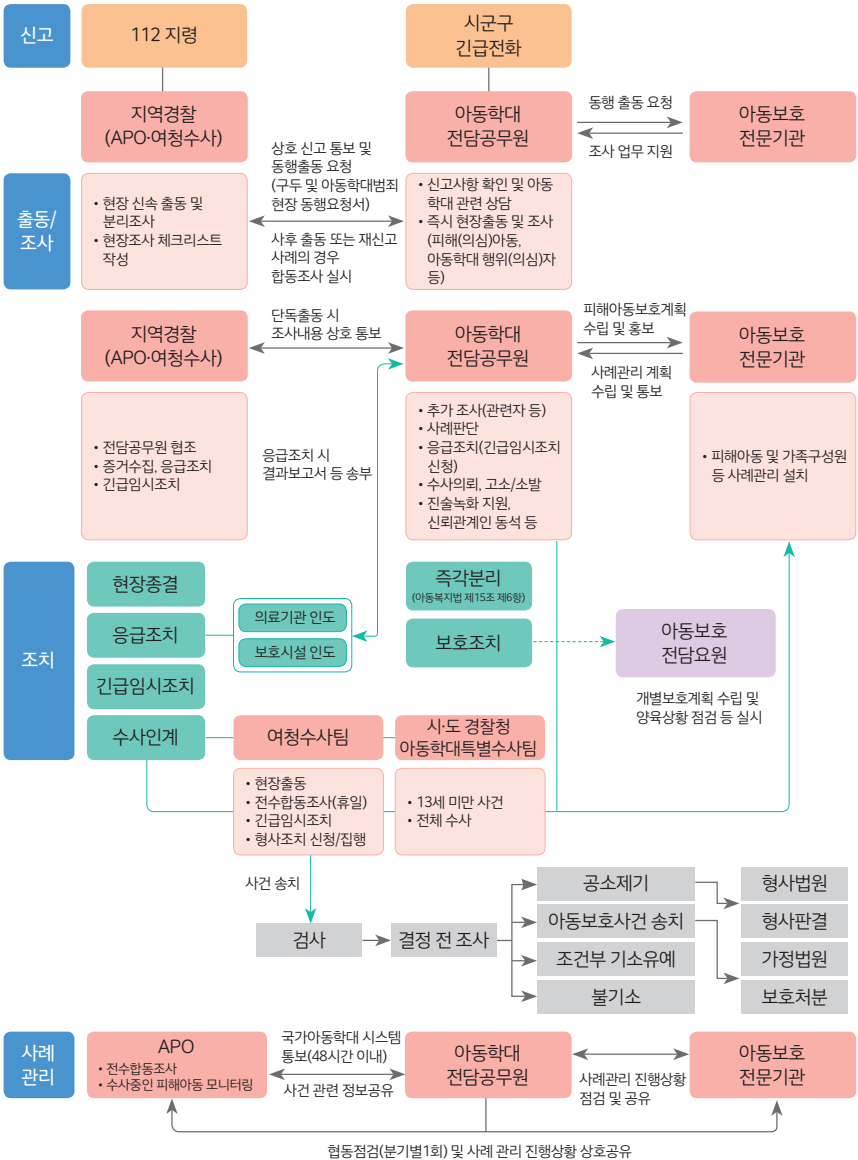
공공화 전환 이후 1년이 흐른 상황에서 공과는 무엇이고 어떤 성과와 한계를 남겼을까요?

우선 현장조사와 사례 관리의 이원화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 전문가들의 견해는 거의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전문성을 갖춘 전담공무원의 확보가 쉽



아동학대 대응체계 흐름도





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투입된 순환직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담공무원과 민간의 상담원, 그리고 성폭력 피해상담 기관인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구축 등도 녹록지 않은 과제라는 진단도 제기됐습니다.

####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30,905
중복	5,347	8,980	10,875	11,792	14,476	14,934
신체	1,884	2,715	3,285	3,436	4,179	3,807
정서	2,046	3,588	4,728	5,862	7,622	8,732
성	428	493	692	910	883	695
방임	2,010	2,924	2,787	2,604	2,885	2,737

(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만 보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최근 5년 사이에 거의 3배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수치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발생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발생이 늘었다기보다 발견되는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동학대 발견율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아동 1천 명당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비율을 뜻합니다. 그 입건 비율이 더 높다는 건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역량이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2.15명, 2017년 2.64명, 2018년 2.98명, 2019년 3.81명, 2020년 4.02명 등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 등 나라가 8~9명대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아동학대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식과 공공화 이후 대응 역량 강화로 신고 사례 접수는 늘었지만, 정작 분리조치를 취한 뒤 아동을 수용할 돌봄쉼터나 그룹홈 등 시설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쉼터는 성별에 따라 분리 수용이 원칙이지만 이 또한 지역별로 여의치 않은 곳이 많고, 당장 시설을 늘리려 해도 이를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는 이웃들의 이해 부족 또한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은 막 제대로 몸을 키워나가는 청소년기와 같습니다. 여전히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 미숙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전담공무원과 상담 전문 요원들의 전문성 강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 빨리 시스템 안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근무 시간 등은 매우 열악하여 전문성을 채 쌓기도 전에 교체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등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전담공무원과  
상담 전문 요원들의  
전문성 강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 빨리 시스템  
안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처벌받지 않는

## 어른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관념과 가족 중심의 문제 해결 관행 등으로 인해 사회가 가정의 문제에 개입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최근 많은 인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의 상당수가 신고 이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매년 3만 건 이상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형사처벌은 그 가운데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한국에서 아동학대는 범죄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도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매년 3만 건 이상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형사처벌은  
그 가운데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은 뭘까요?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의 목표가 ‘원가정 복귀’다.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보다는 일종의 계도나 선도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계도나 선도를 할 사안이 아닌 것도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정인이 사건’만 해도 3번가량 내사 종결된 사건이었다.” (이수정 교수 “한국에서 아동학대는 범죄가 아니다”, <시사저널> 2021. 5. 4 인터뷰 인용)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2번 이상 이뤄지면 무조건 아동을 분리·보호조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을 때마다 입법 체계 강화를 서둘렀으나 한정된 자원과 인력의 한계 위에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다는 비판 속에 보여주기식 위주의 졸속 입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결국으로는 일벌백계를 내세우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뿌리 깊은 가족중심주의가 버티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해!

걱정되는데...



법 제4조 ‘원가정 보호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피학대 아동의 가정 복귀 비율은 82%, 특히 재학대 아동의 가정 복귀 비율도 69%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 학대 가정 상당수가 아동이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데 수용 시설과 예산 부족 등 문제에 간혀 제대로 된 구제와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진단도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가족 중심주의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란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생각해볼 거리로 tvN의 <알쓸

신잡 > 3회(2018년 10월 방영)에 나온 파올라<sup>Paola</sup>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파올라는 어릴 때 버려진 뒤 이탈리아 피렌체의 인노첸티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입양됐으나 부모가 뒤늦게 찾아온 뒤 법원의 판결을 거쳐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낳아준 부모의 곁으로 돌아간 파올라는 행복했을까요?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의 짧은 구술 기록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가정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성찰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제 이름은 파올라입니다. 스무 살이고 이곳 인노첸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곳에서 사랑받던 어느 날 친부모가 찾아왔어요. 판사는 저를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판결했어요. 친부모님과 1년은 종진 않았어요. 폐렴으로 3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한 번밖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어울리지 못했고, 생각과 문화도 달랐어요. 제가 이곳에서 양부모님께 받은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1997. 11. 17 구술 기록)

우리는 그간 주변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많이 소홀했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아동학대 대응의 공공화 전환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의 인식에 아이의 양육은 그 가정이 책임져야 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렵게 학대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위험에 놓인 아이들을 제때 분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접하더라도 가해 부모의 보복 등 시끄러워질 것이 두려워, 신고가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등의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먹고사는 일이 힘들어서 안전과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은 안 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신고의무자 제도를 두

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24개 직군에 이르는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중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24개 직군은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을 비롯해 가정문제, 다문화, 성폭력 대응, 장애인, 정신질환 관련, 청소년 등 사회복지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등 의료인, 보육 및 초중고 교직원,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와 직원, 아이돌보미, 입양기관장과 종사자 등을 아우릅니다.

실제 일선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의식은 많이 개선됐다는 지적이지만, 여전히 신고의무자의 비밀보호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학대아동은 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 아동은 직접 말로 이를 전달하기보다 몸으로, 또 간접적인 행동으로 말합니다.

그처럼 절박함을 담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가 지금 당신의 주변을 배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피학대 아동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신체적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비위생적 신체 상태
- 지속적으로 나는 악취
- 의료적 처치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임신, 생식기에 생긴 상처 긁힌 자국, 항문 손상,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

또한 피학대 아동은 행동 면에서도 정상적인 아이들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자살 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성적 묘사를 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유아적 행동
- 우울 불안
- 수면장애
- 저조한 학습수행
- 잦은 결석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일반 아동과 발달 단계 면에서  
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통의 아이들  
이 보이는 발달 단계에서의 특징을 알아두는 것이 피해  
학대 아동 판별에 유용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발달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좀더 빨리 학대  
정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0~3개월은 소리와 촉각에 반응하며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팔과 다리를 구부리고 손가락을 움켜쥘 수 있다. 소리를 내어  
반응하거나 모음과 비슷한 소리를 낸다.
- 3~6개월은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거나 물건을 향해 손을 뻗  
고 잡는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로 뒤집는다. 웅  
알이를 한다.





- 6~12개월은 다양한 방법으로 물건을 탐색하며 감춰진 물건을 찾는다. 네 발로 기고, 잡고 설 수 있다. ‘엄마’, ‘아빠’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 1~2세는 작은 물건을 조작하며 달리기를 시작한다. 문장 형태의 말 흉내를 내며, 자기를 ‘나’로 표현한다.
- 2~3세는 공간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잘 쓰는 손이 확립되기 시작하며 세발자전거를 탈 수 있다. 3~4개 단어의 문장을 사용한다.
- 3~4세는 일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이해한다. 낙서나 그림을 그리고 한 발로 뛸 수 있다. 성과 이름을 말하고 간단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 4~5세는 50 이상의 수를 셀 수 있으며 역할 놀이를 한다. 단추를 채우거나 신발 끈을 묶을 수 있다. ‘왜’ ‘어떻게’를 사용하여 질문하며 읽기를 할 수 있다.

발달의 정도는 아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상의 발달 단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정 나이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 아이를 접한다면 적절한 보호와 양육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의심

적정 나이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  
아이를 접한다면  
적절한 보호와 양육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진료와 치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곽영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의 인터뷰>

### 아동학대 공공화 및 신고의무자 기준 강화 등 정책 이후 상황이 나아졌나요?

네,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의심) 사례 신고건수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국민들과 함께 의료인도 그 인식이 개선되어 예전 같으면 그럴 수 있었다고 넘기던 일들도 문제를 깨닫고 신고하는 일이 점차 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나아졌나요?

현장 대응에서는 전담공무원과 경찰 대상으로 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후 심리치료를 위한 별도 전문 인력이 충원되고 있으며, 시설 면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호시설의 숫자

도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곳에서 일하시는 인력도 더 늘어나는 등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의 예전과 비교하여 크게 호전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 여전히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 늘어난 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시설 등에서 보이듯 양적 성장을 하였으니 이제는 질적으로 전문성 확보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도 달라졌고, 우리가 아이를 보살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도 질적인 발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개입과 치료, 보살핌이 있었으면 하며, 이런 과정에서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요원들의 유입을 위하여 우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현실화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설에 대한 숫자적 성



장만큼 그 속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경찰, 전담공무원 등의 사례 조사 위원들과 의료인, 학교 관계자 등 신고자들의 상호 입장이 서로에게 잘 이해가 되도록 지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위원회 등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의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학대 사례에 대응하지 못하고 협력도 잘 안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역에서의 협력 모델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 신고의무자, 신고자 보호 체계에 문제는 없을까요?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체계는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현장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현실입니다. 의료진과 교사들 사이에서 신고 후 신변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겪은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아 신뢰가 쌓이지 못합니다. 신고자 보호 매뉴얼과 원칙, 또 이를 다루는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의 징후에 대해 일반인도 이해할 수

### 있게 설명해주세요.

첫째, 9개월 미만의 아이는 기어 다니지를 못하므로(물론 배밀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거의 멍과 상처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에서는 몸에 자그마한 상처나 멍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보호자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멍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4개월 이내(뒤집기도 못 하는 아이)의 경우 어떤 멍이라도 이상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집기조차 못하므로 저절로 멍이 생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득되는 해명이 없다면 4개월 이내 아이의 멍은 일단 이상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셋째, 4세 미만에서는 특히 목과 귀, 몸통에 멍이 있을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는 특히 아이들이 놀다가 실수로 생기는 사고로 인한 멍이 거의 안 생기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를 TEN-4 법칙이라고 합니다. TEN이 몸통Torso, 귀Ear, 목Neck을 의미하며 이 부위의 멍이 4세 이하에 있으면 이상하다는 뜻입니



다. 최근에는 TEN에 더하여 FACES도 역시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FACES는 이상한 부위의 영어 앞 글자를 딴 것으로 각각 설소대(Frenulum, 혀 아래쪽에 있는 띠와 같은 부위), 귓바퀴(Auricular area, 뺨(Cheek), 눈두덩(Eyelid, 공막(Sclera, 눈의 흰자위)을 말합니다.

넷째, 상처의 모양이 어떤 도구를 생각나게 할 정도로 그 경계가 뚜렷한 상처의 경우 역시 아동학대에 의한 상처를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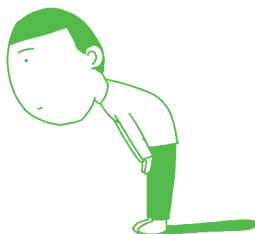




# 신중하게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여러 원인이  
얹힌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난제임을  
이해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아동 보호와 가정의 복원에  
있음을 이해한다.

..



앞서 언급한 ‘정인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극단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몸서리를 치면서 분노를 표출하곤 합니다. 막 자라나기 시작한 떡잎이 무참히 밟혀나가는 광경을 지켜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열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진행된 학대는 가정 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악순환의 굴레를 만듭니다. 학대가 반복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즉각적인 분리가 절실함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분리 자체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어 가정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주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학대행위에 대한 우리의 공분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치우쳐 우리가 혹여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정은 아동이 피해를 보게 된 현장이면서 동시에 치유와 복원을 거쳐 돌아가야 할 삶의 보금자리라는 점입니다. 천인공노할 학대의 사실을 들춰내어 분노하는 일은 쉬우나 그러한 학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함에 있어 분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공과 민간 사이의 역할 분담은 발견과 보호, 회복과 치유 양자의 목적 모두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지혜를 모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라는 결과 이면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학대행위자를 강도 높게 처벌함으로써 일벌백계의 사회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직접적으로 학대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징계는, 비록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는 하나, 그 자체로 물리력 혹은 강제력 행사임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이 또한 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뿐이란 성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명 가해 부모 혹은 보호자의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행위는 비난받거나 처벌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 내에서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온 이면엔 가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함에 있어  
분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발견과 보호,  
공공과 민간 사이의  
역할 분담은  
회복과 치유  
양자의 목적 모두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지혜를  
모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질게 자리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해 부모 혹은 보호자와 아동 사이의 관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아동에게 부모는 썩은 동아줄이라고 해도 동아줄은 동아줄입니다. 비록 생명을 위협하는 부모라 하더라도 그들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동의 ‘양가감정’은 그 같은 배경에서 발생합니다. 피해아동에겐 그들의 부모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비난마저도 또 다른 2차 피해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신중한’ 대처가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신중함은 ‘유능함’의 다른 말이 될 것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상담원 모두 아동학대 위기 상황에 대한 예리한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발견과 가해자인 보호자와 아동의 분리 여부 결정, 이후 조사를 거쳐 사례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판단과 결정, 개입이 망가진 가정을 복원하는 ‘신의 손’이 될 수도, 돌이킬 수 없는 가정의 붕괴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능한 전담공무원, 그리



고 상담원들을 키워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의 종착역은 원가정 분리 혹은 복귀입니다. 한 가정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이기에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아이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은 어디인가. 즉 가정 붕괴에 이르게 된 긴급한 문제의 원인 진단과 사회적 처방 이후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삶의 환경은 어디인가입니다. 한 가정을 정상화하고 가족관계를 복원할 수 있으면 최선이 되겠으나 재학대 등 여러가지 위험 요인들을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이다...

## 어른다운 어른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20년 9월 이후 우리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은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 판단, 각종 조치와 종결 등 업무를 담당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한 민간 영역은 사례관리와 상담, 심리치료 등 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역할 분담은 애초 민간에서 전담해온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아동 사망으로 이어진 여러 학대 사건의 사례를 통해 기존의 민

간 시스템으로는 가해 보호자의 친권 행사에 맞서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때마다 여론은 들끓었고 거센 사회적 압력이 지금까지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온 배경이 됐습니다.

과거엔 아이의 신변 보호 및 안전 도모 등 치안과 관련한 경찰의 개입 이외에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실상 전담해온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공공영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그리고 민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간의 공조, 협조 체계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정부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2020년 말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숫자를 290명, 2021년까지 664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력 충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원 규모로도 사례 관리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악성 민원이 만연하고 늘상 야근 등 초과 업무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 게다가 발빠르게 숫자를 늘리려다 보니 40시간 업무 교육만 받고 즉각 현장으로 투입되는 미숙한 인력의 숫자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전담공무원 체제가 제대로 자리잡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있으리란 게 대체적인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무엇보다 제도 시행 초기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전문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걸림돌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현장조사 및 사례 판단, 피해아동과 가해 보호자 응대 등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인내심, 사명감을 요하는 일입니다. 업무 성격상 야간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출동해야 하기에 제대로 지속 가능한 당직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과제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순환직 공무원들이 3~4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교체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순환직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엔 전문성은 물론 업무 부담의 불균형 문제도 쉽지 않아 전문 인력의 채용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담공무원이 오관하면 피해아동이 방치돼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멀쩡했던 가정이 파탄을 맞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2인 1조 출동이 원칙인데 전담인력이 3명이다 보니 때로는 밤을 새운 다음 정상 출근해야



하는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기피 부서’로 낙인찍혀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 아동보호대응팀 관계자)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공공화의 방향을 정한 만큼 이제 제대로 된 자질과 사명감을 갖춘 전담공무원들이 충분한 권한과 체계를 갖추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아울러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역할 또한 더욱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하는 과제가 대두합니다.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례의 조사 및 사례 판단에 대한 전반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후 사례의 관리를 담당하는 상담원은 피해아동과 가해 부모 혹은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원의 주된 역할은 피해아동과 그 가정을 도와서 학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전담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면 상담원은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입니다. 2020년 9월 본격적인 공공화 정책 이전에는 아동보호전

문기관이 사례 조사,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분리조치 및 이후 사례 관리까지 전담하였으나 이제는 사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역할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8곳으로, 229개 시군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 접수 및 사례 건수가 크게 늘면서 각각의 기관별로 관리해야 할 사례 부담도 커졌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1인당 76건의 사례를 담당하는데,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면 적정 사례는 1인당 20건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상담원 1명당 최대 15건 내외라고 합니다.

##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 전담공무원의 임무와 책임은 막중합니다. 사건 발생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조사 업무를 맡고, 아동과 부모의 분리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눈’이 됩니다. 나아가 조사를 거쳐 최종적인 학대 여부 판단에 있어 근거 마련과 1차적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담공무원에겐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제도와 현실에서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명감과 함께 잦은 야근 등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 사례 조사에 호의적이지 않은 가정 내 보호자와 아동과 대화를 통해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화 및 공감 능력,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리한 관찰력과 이해능력, 판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전담공무원이 현장의 사례를 발굴하여 사례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이라면, 구체적으로 아동과 보호자 상담과 치료 등을 거쳐 종결에 이르는 사례 관리를 맡는 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입니다.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원구 상담원과의 인터뷰>

**연령대와 이력, 맡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30대이며. 201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5년 10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 굿네이버스 소속입니다. 순환직이기는 하지만 저 스스로 상담원 업무에 대한 의지를 갖고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현재 사례는 몇 건이나 맡고 계신가요?

42가정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화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공공화 이전에도 이 업무를 해왔는데, 지금 변화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조사를 담당했을 때에는 조사 대상인 부모나 보호자, 피해자가 조사 받기를 거부했을 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때로 불명확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해 불안하기도 했구요. 전담공무원과 사례관리를 맡는 민간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하루 빨리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과도기에 있다 보니 사례 대상인 가정을 바라볼 때 사회

복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경찰이나 다른 기관의 경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사건을 다룰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정보 공유나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잦은 인사 이동 문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례관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피해아동과 가해, 비가해 보호자 모두의 입장을 듣고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가출이나 음주, 흡연 등 청소년 문제의 경우 보호자는 아이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이와 보호자 사이 분리가 됐을 때 보호자에게는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는지 묻고 스스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아이에게도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합니다.

### 사례관리와 관련해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이를 위한 기관인 것은 맞지만 무조건 아이의 편이라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지 않은 아이의 주장에도 편을 든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체벌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엇나갈 게 뻔한데 당신들이 그것을 막았다, 법적인 개입을 해 가정을 와해시켰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이 진행된 뒤 10명 중 9명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만나길 잘 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부모님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한 부모님이라 보고 접근합니다. 그분들이 아이들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지해 드리구요. 그동안 잘 해왔던 것,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또 어떤 도움을 제공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니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 추후 사례관리에서 강화되어야 할 전문성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강점 관점 해결 중심 접근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피상담자가 갖고 있는 강점, 긍정적인 면을 주목하여 이를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가려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 3년간 연구와 실천을 통해 상담기법을 받

전시켜온 ‘통합지원 전문 서비스’에 의거해 도움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 보람을 느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부드러운 재질의 막대기로 체벌을 해온 어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는 체벌을 받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어머니가 무섭게 혼을 낸 것이 발단이 돼 아동학대 사례로 입건이 됐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만남을 거부했지만 계속 설득해서 늦은 시간에 만나게 됐는데요. 어머니와 아이를 각각 만나면서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가 부모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어머니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아이에게 이런 속마음이 있는 줄 몰랐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육 문제를 다루는 한 TV 프로그램에 코끼리가 아이의 속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진행되었던 상담을 그 코끼리에 비유해주시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 와서 저도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학대피해아동 쉼터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조치된 아동이 3~9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 수용 시설입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105개 (700명 수용)까지 확충하는 한편, 2세 이하 피해아동의 경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통해 200여 개의 가정에서 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대로 판단되는 사례가 매년 3만 건에 이르고 있어 쉼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담치료그룹홈 김미순 시설장, 홍정선 치료사>

###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어떤 곳인가요?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아이의 욕구를 파악하여 심리치료를 진행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76곳 정도 운영 중인데 올해 105군데, 내년에는 200곳 넘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저희 정원은 7명인데, 항상 7~8명이 머물습니다.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4명, 전담 치료사 1명, 필요시 계약직 치료사를 추가로 두고 운영합니다. 코로나 비대면 상황 이후 수요가 더욱 늘었습니다. 여러 유형의 아이들을 한 곳에 수용하다 보니 분리의 필요성도 시급합니다.

### 수용된 아이들의 일상은요?

집단생활 외에는 일반 가정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학교, 학원에 다니고 사회복지 시설 규정에 따른 여러 의무 교육, 문화체험 등 활동도 진행합니다.

### 심리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놀이치료를 중심으로 합니다. 아이의 상황에 따라 언어 치료와 미술치료 등 다른 방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는 보통 복합 외상을 보이는데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상황의 아이를 함께 수용하다 보니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과격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 전문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치료할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공격성을 보이는 이면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느낄 때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 쉼터 확충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도 있으시죠?

아이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다 보니 쉼터 시설이라는 걸 주변에서 알게 되는데, 많은 분이 편의를 봐주고 이해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혐오 시설로 보는 시선을 느낄 때는 안타깝습니다.

## 언론의 역할에 관하여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함으로써 사회적 공분을 키우고 관심을 모으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의 전문가들 다수는 언론 보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거나 아쉬움이 많





다는 입장을 피력합니다.

“아동학대의 행위 자체와 관련한 보도 내용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도 있지만 그 형제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어요. 그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인데, 그 사람들에게 관한 건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아동한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고,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Y씨)

아동학대 사건은 언론의 입장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우 자극적인 소재입니다. 그 묘사가 구체적이고 더 자극적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기사 조회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매체 환경 또한 그 같은 보도 관행을 부추깁니다.

사회의 공공선이 무엇인가에 대해 획일적인 평가 기준이 있을 수 없겠으나 발생한 행위 사실 자체보다 사건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들, 제도 변화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언론 보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전학 가고 싶어...

## 무엇 하나 빠짐없이 신중하게

신속한 개입은 위험에 처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여러 차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발 빠르게 그 역량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입은 기본적으로 이미 발생한 학대 사건, 특히 매우 위중한 수위의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학대를 초래하는 사회 저변의 인식과 일상 속 낮은 수위의 학대행위에 대한 대응은 놓치고 있다는 비판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번 절에서는 사례 관리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앞서 설명한 전담공무원과 사례 관

리를 담당하는 상담원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사례 접수가 이뤄지고 나면, 피해아동과 부모 모두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됩니다. 이들이 기본적으로 치료나 상담에 소극적, 혹은 적대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상담 기술이 필요함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통상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치유가 쉽지 않은 복합 외상의 징후를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통제하기 쉽지 않은 공격성을 표출하기도 하며, 또는 외부세계와 극단적으로 단절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해 부모 또한 심리치료 및 상담의 대상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가정 내 학대 문제 또한 일상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에 부모의 심리나 관계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동학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 피해아동의 상담 및 외상 치료

---

조사 이후 상담과 심리치료는 복합적 외상을 입은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피해 아동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과 치료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니다. (2008년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발간 연구집의 사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8세 여자 어린이 K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7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K는 주로 물리적, 교육적 방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집에서 생활하며 씻지 않은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조사 결과 K는 폭식과 잦은 지각, 결석 등의 행태를 보이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지 못했고, 욕구 좌절 시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불안정하고 주의가 산만했으며 어머니의 질환에 대해선 이해도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성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거의 없어서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며, 기본적으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또한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아동에 대한 애착도 강했습니다.

사례 관리에 들어간 아동복지센터는 아이를 상대로 두 차례의 놀이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첫 치료 시기 아이는 아파서 누워 있는 엄마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가족화를 그렸습니다. 엄마의 입원에 대해 얘기하니 얼굴을 찡그리고 몸을 꼬면서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엄마의 상태에 대해선 두려움과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치료상담사는 아이에게 엄마가 감기에 걸린 것처럼 머리가 아파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며 병원 치료를 통해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시기, 치료상담사는 아이가 감정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놀이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느낀 감정으로 ‘슬픈, 무서운, 시무룩한, 재미있는, 사랑하는’을 선택했습니다. 엄마에 대해 아이는 양가적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생활하면서 생긴 부정적 감정은 해소되지 못한 채 쌓여왔습니다. 상



담치료사는 아픈 가족과 함께하면서 슬프고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힘들었던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해주었습니다.

15세 C군은 PC방을 갔다는 이유로 어머니로부터 허리띠로 맞고 가위에 왼손이 찢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2012년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연구집 사례 재구성)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해 중학교에 진학한 뒤에는 교내 흡연과 교사에 대한 반항, 무단결석 등 오랜 기간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조사 및 상담 결과 C군은 지능 발달의 불균형과 함께 오랜 비순응적 태도에 대한 부정적 상호작용의 반복으로 인해 자기 확신감이나 긍정적 자아 이미지 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C군에게는 총 17회에 걸친 모래놀이 치료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서적 안정과 함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 유도,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 유도 등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옛날전쟁’을 제목으로 한 첫 치료에서 C군은 성을 모래 상자 좌우에 두고 가운데에 금을 그어 강을 만들었습



니다. 탱크와 미사일, 군용 트럭, 군용 막사들을 놓은 뒤 잠옷을 입은 아이 인형을 중앙에 놓아 배치를 마쳤습니다. C군은 “꿈 내용을 상자 속에 만들었다. 중간에 내가 있다. 총알이 날아와도 죽지 않을 것 같다. 상황이 재미 있고 스릴 있다.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한 장면인데 호계, 화천 연합군과 담덕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전쟁 중이다. 전쟁 이유는 모르겠으나 연합군 쪽이 군사, 보급품이 많아 승리할 것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상자 안 배치가 대칭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심리적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문제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성향이 불안정하게 표현되어 위태로워 보일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총 17회에 걸쳐 진행된 치료 결과 점차 내면에 긍정적인 힘이 생기고 소통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실제 C군은 9개월이 지난 뒤 부모와 관계 회복을 한 뒤 센터에서 퇴소하여 원 학교로 복학하였습니다.



## 보호자 상담, 치료 및 지원

심리치료 상담은 아동과 부모 모두 참여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상담을 거부하는 아이나 부모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겠죠. 흔히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과 치료 과정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정 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 과정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강소민 치료사>

### 간단한 이력과 치료사 직업을 소개해주세요.

아동심리치료를 전공했고 2009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치료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가정 내 부모들의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상을 겪은 아이들을 지속해서 만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보람은 확실히 있지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제 직업에 대해 물어볼 때 선뜻 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리된 경우에는 아동만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

만 기본적으로 심리치료는 아동과 부모 모두가 대상입니다. 아동은 물론 부모님은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나’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료 상담 초기엔 참여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해자본인이 신고해서 오는 사례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상담, 치료에 임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놀이치료를 전문으로 합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하니 놀이치료가 가장 보편적인데, 그다음은 미술치료가 많습니다.

### 놀이치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통상 1회 50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간이 6개월이라면 24회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40분은 아이와의 놀이치료 시간이고 10분은 부모와 상담하는 데 할애합니다. 놀이치료실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도구들이 가득해 들어올 때부터 아이들의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치료실은 아이들한테 특별한 공간이며 외부세계와는 다른 경험을 제



공하는 곳입니다. 놀이치료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일은 아이의 마음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때로 한두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치료사는 아이 스스로 장난감이나 도구를 선택해 놀게끔 하면서 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읽어주는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 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원가정 분리와 복귀의 갈림길에서

고위험에 놓인 아동들을 구제하여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놓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전담공무원과 상담원, 두 담당자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 체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양육 과정의 어려움과 문제를 공감하고, 자상하면서도 조목조목 예리하게 진단하며, 해법까지 알뜰하게 제시해주는 오은영 박사에 열광합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기에 이같이 각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위험에 놓인 아이를 구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복원이 가능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원이 가능한 가정이라고 판단되면 각 구성원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재학대 비율은 2016년 8.5%, 2017년 9.7%, 2018년 10.3%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각 분리조치를 강화하더라도 쉼터 수용 시설 확보나 제대로 된 사례 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뒤 따르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이루려면 전담공무원과 상담원의 전문성이 쌓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장의 전문가들이 걱정한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인력 확충과 시스템 보완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순환직에서 전문직으로의 전환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 상세하게

아동학대 문제가 극소수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일상의 작은 학대행위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구체적 유형에 따른 사례와 그  
특성을 이해하고 양육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안과 처방을 살펴본다.



앞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가고 있으며, 그 시스템이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취지와 함께 이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떠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함께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단 겁니다. 공공화가 일선에서 자리 잡기 위해 전담공무원은 물론 유관 기관, 신고 의무자들의 유기적 협조와 기여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상의 실천으로 관심을 돌려보려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일상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낮은 수준의 학대행위가 널리 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동학대’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 담기엔 그 현상마다 제각각인 원인과 양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복잡적입니다. 각각의 행위 원인, 또 학대 유형별로 접근과 처방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정인이 사건’을 비롯, 가족 윤리

를 파괴하는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거세게 일었고, 이는 발 빠른 제도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화, 감시와 대응 시스템 강화만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일상의 아동학대행위를 가볍게 받아들이거나 묵인하게 하는 사회 저변의 분위기,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돼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현실 등 여러 구조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낡은 가부장적 윤리,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과 결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달아 실천적으로 문제에 맞서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혹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마음공부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갈등의 사례와 그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미리 생각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내 문제가 아니야’라는 생각이 위험하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신속, 신중함의 열셋말에 이어 아동학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열쇳말은 ‘상세하게’입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경미한 아동학대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나아가 행위자의 특성과 원인을 이해하고 각각 유형별로 우리가 숙지해야 할 대처법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아동학대 문제의 상세한 이해와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태도는 자신의 기준에 의존하는 대신 아동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판단하려는 노력입니다.

스페인 아나재단이 2013년 만든 아동학대 광고가 있습니다. 어른의 눈높이에서 보기엔 그냥 어린아이의 얼굴이지만, 130cm가량 신장인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면 입술이 부르트고 뺨에 피멍이 든 모습이 다음 문구와 함께 드러납니다.

“누군가 너를 때린다면 전화해, 도와줄게.”

학대 발생의 원인과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당장 우리 가정 내에서도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학대의 작은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보



내는 위험 신호를 제때 감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 위기 대응법을 미리 생각하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고위험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에 함께 협조해야 합니다.



## 우리는 혹시

## '어쩌다 어른'이 아닐까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까요? 실제 아동학대 사건에서 나타난 행위자 특성을 보면 의외로 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준비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이 여전히 올바른 양육 태도나 구체적인 방법 부족이라는 현실에 주목합니다. 즉 아동학대 문제를 풀기 위해 부모의 마음공부, 교육이 우선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모 등 보호자 스스로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양



## 전국 아동학대행위자 특성 (2018년 현재)

(단위: 건, 괄호 안은 비율%)

특성 없음 13,220(30.8)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0,672(24.8)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6,825(15.9)



부부 및 가족 갈등 3,828(8.9)



성격 및 기질 문제 3,136(7.3)



중독 문제 1,967(4.6)



폭력성 1,692(3.9)



기타(어릴적 학대경험, 자녀의 장애 등) 1,639(3.8)



육 교육 등 지원 강화가 수반될 때 아동학대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나 고립, 부부 및 가족 갈등의 문제는 아동학대를 넘어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



장해 그 해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복지 제도 수준의 강화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해 완화해 나가야 할 한 차원 큰 복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 복지 지원과 가족 문제 상담 등의 폭넓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 외 보호자의 성격이나 기질 문제, 중독, 폭력성 등 양육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 문제도 학대행위자에게서 발견되는 특성입니다. 이는 당장의 처방을 통해 해결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가해 보호자 스스로 바뀌려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사회의 개입, 필요 시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쩌다 어른’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나요? 자녀를 기르는 데도 배움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한 첫 단계는, 스스로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는 실천에 있다 하겠습니다.

## 일상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기, 핍대하기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아동의 몸을 잡고 강하게 흔들, 벽에 밀어붙임 등)

손찌검이나 매를 드는 등 명백한 체벌 행위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상의 가벼운 신체 접촉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집안 어른들과의 모임 등에서 자녀가 산만한 행동을 보이면 어른들 몰래 자녀의 무릎을 꼬집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 **일상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위협하는 행위(자녀가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면 자녀가 갖고 싶어 하거나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
- 비난하는 행위(자녀의 실수 등에 “네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등 표현을 하는 것)
- 조롱하는 행위(자녀의 신체 및 행동 특징을 조롱거리로 삼는 것)

- 집 밖으로 내쫓는 행위
- 다른 아동과 비교하는 행위(형제나 친구 등과 학업 성취도, 재능, 외모 등을 비교하는 것)
- 자녀 간에 차별, 편애하는 행위(특정 자녀에게만 불이익을 감수 하도록 하는 것, 특정 자녀에게만 더 많은 애정 표현,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자녀를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자녀에게 과도한 부부싸움을 노출시키는 행위

자녀가 음식을 엮지르는 행동을 했을 때 “네가 그렇지 뭐”라며 혀를 차는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부모가 일상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대표적인 정서 학대행위입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은 신체적 학대 감소와 맞물려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비대면 조치로 인해 아이가 가정 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들의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도 많이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가 아동과의 갈등으로 표면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네가  
그럴 줄 알았다!



## 일상에서 발생하는 성 학대행위

-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 주변을 만지거나 옷을 벗겨보는 일
- 자녀 의사에 반하여 몸을 만지거나 뽀뽀 등 스킨십을 하는 일
- 음란 동영상 등 자녀의 올바른 성 인식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도록 하는 일

현재의 부모 세대에게 자녀 성교육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규 과정의 성교육은 청소년기 왕성한 호기심을 충족하지 못하는 매우 형식적인 내용 전달에 그쳤으며, 또래 문화의 일부는 상당 부분 왜곡된 성문화를 전파하는 내용이어서 교육적 내용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논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기 위해 여기선 원론적인 얘기만 언급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기성세대의 성에 대한 인식과 그 향유 방식, 문화는 그다지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른바 성학대 'N번방' 사건 등은 표면적인 도덕과 윤리 이면에서 자리한 우리 사회



의 왜곡된 관음증과 도착적 소비 행태 등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는 좀더 솔직하게 성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고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 성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할 지식과 가르침은 어느 수준이어야 할지에 대해 자녀가 성장하기 전에 미리 살피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왜곡된 성 인식을 하지 않도록,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주체적 성 인식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상에서 발생하는 방임행위**

- 청소, 설거지, 빨래를 제때 하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을 방치한 경우
- 급한 일을 이유로 어린 영유아나 저학년 아동만 집에 놔두고 장시간 불일을 보는 경우
- 자녀가 “아프다”고 하는데 “괜찮다”며 여러 차례 관심을 두





우리 딸  
아가씨  
다 됐네...

지 않는 경우

방임의 문제는 저소득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결혼 가정인 경우 자녀 돌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초 생활 보장 등 더 큰 영역의 복지 시스템과 결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게임중독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함께 방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만큼 주변의 관심과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자칫 빠져들기 쉬운 정서적 학대의 함정

실제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중복 학대의 절대다수는 정서적 학대와 다른 학대 유형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유형의 71%가량에서 정서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현실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유형인 이유는 일반 부모나 보호자들이 이를 학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심각하고 자극적인 수위의 언어 표현만 학대인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들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갈등 발생 비율도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2020년 국제 아동보호 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아동 삶의 영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휴교에 따라 가정 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이 8%에서 17%로 늘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가능한 법인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서적 학대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정서적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우리의 양육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이 상당수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양육 현장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문제**

지난 2021년 10월 1일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어린이 집의 협조를 얻어 현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5분과 양육 현장의 어려움과 아동학대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각 어머니님의 연령대와 가족 구성을 밝힙니다.

## 정서적 학대 행동 범주와 하위행동 유형

본 연구의 행동 범주	본 연구의 하위행동 유형	행동 양상
자극 및 상호작용 차단하기	제한	아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음
	감금	아동을 혼자 특정 장소(화장실, 베란다, 지하실 등)에 남겨두거나 격리시킴
	발달자극차단	아동의 활동과 또래관계 형성 등의 발달에 필요한 자극 기회를 차단함
무시/ 거부하기	기본 욕구 무시	아동의 정당한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고의로 무시함
	상호작용 거부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아동의 시도에 대하여 면박을 주거나 거부함
	존재 거부	자녀와의 생물학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양육을 회피함
	정서적 부재	양육자의 무능력 상태로 인해(예: 약물중독, 음주상태, 정신적 문제 등) 아동의 정서적 욕구를 수용해 주지 못하고, 양육자가 아동의 감정을 공감해 주지 않고 하찮게 여김
	비 일관된 반응	양육자 기분에 따라 변덕스럽게 이랬다저랬다 하는 등 다르게 반응함
겉주기	위협	아동의 물건을 부수거나 위험한 도구나 말로서 두려움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언어폭력	성난 목소리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퍼부음
	유도	아동을 어느 한쪽 부모 편으로 끌어들이어 이용하면서 아동에게 특정 의견이나 행동을 유도함

(황옥경 외 3명,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 기준 마련 연구', 2020)

모멸감 주기	수치심 주기	아동을 비하하거나 조롱함
	굴욕감 주기	사람들 앞에서 아동을 혼내거나 창피하게 만듦
	하찮게 여기기	아동의 역량을 의심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낙인감을 줄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함
	따돌리기	가정 내에서 아동을 따돌림
위험상황 노출	가정폭력 노출	아동이 가정폭력 혹은 학대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
	부적절한 위탁 양육	양육자가 알면서도 아동을 부적절한 양육자에게 맡김
	타락	아동에게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조장하여 일탈을 강화하며, 건강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없도록 만듦
능력이상의 무리한 기대와 강요하기	성취 강요	아동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성취를 하도록 극도의 압력을 가함
	비교	아동의 발달 능력이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비교함
	착취	아동의 연령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양육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로 아동과 양육자의 역할을 뒤바꿈



- A (40대, 딸 10세, 딸 6세)
- B (30대, 아들 10세, 아들 7세, 아들 6세)
- C (30대, 아들 10세, 아들 7세)
- D (30대, 딸 8세, 아들 5세)
- E (40대, 딸 19세, 딸 16세, 딸 6세)

전쟁과도 같은 양육의 일상 속에서 많은 부모님이 힘듭니다. 당장 매일 가사와 양육의 버거운 짐을 마주하게 되죠. 아이는 내 맘과 같지 않습니다. 때로 손 가는 데가 많지 않은 아이들도 있으나 기대와 현실은 대체로 어긋납니다.

“딸은 감정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고, 아들은 오히려 안전한 편이에요. 밖에 나가 킥보드를 타게 하면 아들은 금방 돌아오고 싶어 하는 반면 딸은 온종일 놀려고 하니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D)

“저는 둘째를 조금 더 귀여워하기는 해요. 첫째는 손이 안 가는 아이니까, 내버려 두는 편이거든요. 둘째는 다치



거나 장난도 많이 치고 해서 더 집중하는 편이에요. 큰아이한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 아닌 학대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A)

일선의 얘기를 들어봐도 신체적 학대 사례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맞고 자랐던’ 경험은 남아 있지만 더는 회초리를 들어선 안 된다는 얘기를 이곳저곳에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듯도 합니다.

“남자아이 셋을 키우니 체력이 많이 달리긴 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엉덩이나 등을 때리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회초리로 맞으면서 자란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아동학대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좀 혼란스러운 건 예를 들어 ‘너 바보야?’라고 할 때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되면 학대,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현실 속에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B)

아이를 제대로 기르고 싶은 마음은 많은 부모가 같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대우를 한다고 해도 아이의 기질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 결과도 제각각이니 부모 입장에선 양육의 부담이 커져만 갑니다.

“첫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과거에 너무 기를 죽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말을 해도 첫째와 둘째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찾아보니 결국 다 부모의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훈육인가 아동학대인가 고민하게 된다면, 결국 그 행동은 아동학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학대성 행위를 완전히 차단하면서 아이를 기른다는 게 가능하긴 한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셋째가 첫째, 둘째와 터울이 있다 보니 원하는 것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여행을 떠나 전시회를 가자고 하면 셋째는 싫다고 딱 드리눅는 거예요. 양육 관련 책에 나온 대로 ‘힘들구나’, ‘괴롭구나’ 달래다 보면 어느덧 시간



이 홀리 전시회는 끝나가죠. 오늘 아침만 해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아이를 깨우면 방문을 뺑 차면서 ‘졸린데~!’ 하고 소리를 질러요. 아이가 친구랑 노는 것을 좋아해서 어린이집은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고는 싶니? 엄마랑 설까?’ 하면 ‘아~~~’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곤 다시 ‘졸린데~!’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30분을 그렇게 반복하는 거죠. 시간은 가고 있고 소리 지르면 학대라고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지’ 하는 생각에 너무 괴로워요. 저도 약속이 있어 나가봐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그러면 정말 머리끄덩이를 잡아 흔들고 싶은 생각마저 들어요.” (E)

“물론 아이를 위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맞춰줘야 한다면, 나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 때가 있어요.” (C)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부모도 감정과 주관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이를 대하려 해도 어렸을 적 경험, 특히 스스로 자신의 부족한

면이라고 느끼는 부분을 아이에게서 발견할 때 어쩔 수 없이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큰아이한테 저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아이를 그렇게 만  
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통제하고 채찍질하는 측면  
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아이를 때리지는 않지  
만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너 그럴 거면 나가’, ‘엄마 아빠 하는 방식이  
맘에 안 들면 넌 나가는 거야’, ‘친구들한테 똑바로 말도  
못 할 거면, 왜 그런 짓을 해.’ 최근에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A)

“기본적인 규칙과 배려를 가르쳐야 할 때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기본적인 규칙과 배려가 나만의 가치관이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이 있어요. 첫째는 다른 친구가 자  
기를 놀려도 무뎌하게 반응하는데, 둘째는 화가 나서 부  
르르 참지 못하는 거죠. 제 입장에선 첫째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며 ‘왜 대처를 안 했어’  
하는 거죠. 어쩌면 내가 이 아이를 모두 다 책임지고 있다



는 게 부담이 돼서 이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아이를 빚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교만한 생각 아닌가…….” (E)

어머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일상 속 아동학대가 대부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 또 많은 부모님이 그 같은 학대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옳을까요?

부모들 스스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 보호자들이 공공화 이후 제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영역의 교육과 홍보 등 노력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요새 젊은 엄마들 사이에 아이들을 때리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서적 학대는 여전한 것 같아요. 한 엄마가 6~7세 아이와 통화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다 보니 매우 공격적인 말들을

쓰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을까’ 물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아요’라는 답이 돌아와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그러한 일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되묻곤 해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기준만 들이대면 방법을 모르는 엄마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50대 여성, 전문직)

어디까지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훈육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 공공화 이후에도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게 현실입니다.

공공화 전환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되지만, 일선 현장에서 좀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 사례에서 사법 처리와 복지 서비스 제공 수준의 개입을 판단할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 용역보고서 등을 참조하면 사법 처리 대상의 기준선은 ‘아동의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부모 및 보호자가 공공의 개입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때'로 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동학대 사법적 절차 의뢰 기준 권고(안)**

- 8대 준거 기준 = '아동의 연령', '행위 유형', '행위의 위험성', '결과의 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의도성', '신고 전력'
- 사법적 절차 의뢰 기준 =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즉 아동이 위험 상황에 빠져 있으며 부모 및 보호자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 아동복지 서비스 절차 의뢰 기준 = 아동이 긴급한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며 아동 보호자와 부모 등 가해자가 복지 서비스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 반드시 알아둬야 할

## 학대 예방 지침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과 변화의 방향, 맥락을 충실히 이해했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실천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더는 용인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범죄의 차단과 예방을 가로막는 과도한 친권 보호와 가부장적 권위 또한 이제는 사라져야 할 낡은 규범이자 가치라는 점을 명확히 할 때입니다.

이는 기존 가치나 권위를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가정, 혹은 가족관계의 복원을 위해 개인과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의 변화



상을 잘 접목하여 미래지향적인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를 구축하자는 구상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양육은 끝없는 부모의 공부와 수양, 자기 계발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 모두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원칙을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 체벌 효과는 그때뿐... 자존감 약화, 힘의 논리 순응 등 부작용

체벌의 효과는 기껏해야 아동의 나쁜 행동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 그로 인해 우리가 지拂해야 할 대가, 즉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심대하며 지속적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양육에 있어 모든 좋은 방법들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쉬운 방법으로 아이의 행동을 즉각 바꿔보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체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감정 섞인 꾸지람 등은 효과가 없습니다. 당장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못 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아이들은 점점 자라나게 되고, 체벌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강소민,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치료사)

무엇보다 체벌은 체벌이 의도하는 목적과 상관없이 타인에게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행동 양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커지고 힘이 세지거든요. 힘의 논리, 힘이면 다 된다, 힘으로 해결하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가 친구와 싸우고 왔어요. 그때 부모가 싸우지 말라고 체벌하게 되면, 아이는 ‘나는 때리면 안 되고, 엄마 아빠는 해도 되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강소민,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치료사)

신체적 학대의 출발점에도 ‘핑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하여 통제가 어려울





상황이 되었을 때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흔하게 나타나는 학대 사례 유형 하나를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중학생인 D군은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이른바 ‘문제아’였습니다. 도저히 말로는 아이의 탈선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아버지가 훈육을 명분으로 아이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내가 해도 안 되니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 말은 듣지도 않아, 남자애니까 남자인 아빠가 훈육하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묵인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도 말을 듣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훈육은 아버지가, 양육은 어머니가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체벌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지난번 체벌 때의 말이 지켜지지 않으니 감정이 섞여 체벌 강도가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결국 큰 사건이 벌어져 아이가 자퇴하게 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비화했습니다. 어



머니는 그제야 더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D군과 아버지는 관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했고, 한동안 아버지는 따로 집을 얻어 나갔습니다.

분리조치 이후 아버지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게 됩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은 아버지의 상담 교육 정도로 비교적 가볍게 끝났습니다. 너무 늦지 않은 어머니의 결단이 가정의 파국을 막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믿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세월이 지난 논쟁이지만, 교사 체벌권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을 정리하여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1990. 11. 6 “〈교사 체벌〉 이렇게 본다” 중 재구성 발췌)

“체벌이 교육 수단으로 효과가 있기 위해 다음 요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 체벌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둘째 교사와 학생의 교감이 이뤄지고 학생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셋째 체벌 시간과 장소가 적절해야 한다. 넷째 체벌 정도는 학생 과실과 비례해야 하고 정신적, 육체적 발달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벌 이유를 확인하고 위로와 격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중략) 효과적으로 통제 운영되는 경우 체벌은 교육의 좋은 수단으로 학생의 인격 형성과 학력 향상을 기하며 사제 간의 사랑과 정을 두텁게 한다.” <찬성론, 교사>

“첫째, 체벌은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불법적인 것이다. 둘째, 부정적 정서 반응을 수반하는데 교육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것이다. 셋째, 체벌은 신체적 손상을 수반하며 감정이 격해질 경우 예기치 않은 결과를 빚기 쉽다. 넷째, 학업 성적 부진, 교사에 대한 반항 등 체벌 이유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상 신체적 고통으로 행동을 강제하는 체벌은 비인간적, 비민주적이며 자율적 행동 능력과 책임감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을 파괴한다.” <반대론, 교수>

저는 체벌의 부정적 영향이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압도한다는 쪽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 역시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 일관성과 감정 배제, 두 가지 철칙

전문가들은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양육 과정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두 가지 원칙으로 일관성을 가질 것과 감정을 섞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단순한 원칙으로 보이지만 실제 일상에서 이를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요. 부모님들과 상담할 때에도 굉장히 많이 격려를 해드리고 지지해드려요. 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자 이렇게요. 감정이 격해질 때는 아이와 일단 떨어지는 게 중요해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아이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아이와 시선이 닿게 되면 고스란히 그 감정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도록 합니다.” (강소민,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치료사)



내 마음을  
가다듬어보자



심호흡...

아이와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부모의 의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무엇이 허용 가능하고 무엇이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정을 공유하게 되면 아이에게도 동기 부여가 됩니다.

다만 규칙이 너무 많아지면 아이가 포기해버리기 쉽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현재의 아이 상황에 맞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을 지켜야 할 규칙으로 삼는 것이 유용합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우리 주변엔 많습니다. 일상에 쫓기다 보면 양육의 방법이나 아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모 스스로 어렸을 때 학대 혹은 방임됐던 경험이 있다면 더욱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난감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나름의 눈치로 대처하지만 양육의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아이의

때가 많아지는 시기가 있고, 연령대별로 이해가 있어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분들에게엔 의식적으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려요.” (강소민,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치료사)

때를 쓰는 아이의 말을 원칙 없이 들어주는 일은 특히 금해야 할 일입니다. 일단 정해진 규칙은 아이가 익숙해질 때까지 함께 노력해서 몸에 배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조금 시간의 여유를 낼 수 있다면 부모가 인권 감수성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인권 감수성이란?

아동학대 문제에서 인권 감수성은, 아동이 일상에서 겪는 여러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독립적 인격체로서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향을 뜻한다.

인권감수성은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상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태도입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더 놀겠다고 떼를 쓸 때, 스마트폰을 더 갖고 놀겠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행동하게 하기 위해 큰 소리를 내거나 거친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다들 있을 겁니다.

이때 인권 감수성이 있는 부모라면 자신의 의지를 아이에게 강요하기보다 아이 스스로 그러한 행동의 결과와 책임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대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할 겁니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누굴 닮아서 그렇게 게으른 거야!” “또 한 번 그따위로 행동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모든 일상적 대화가 인권 감수성 면에서 낙제점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아동이 부모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아동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손쉬운 학대의 길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게으르게 행동하면 자신은 물론 주변에도 피해를 주게 되지 않을까?” “지금 행동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다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 혹시나 주변의 아이에게서 성학대 피해가 의심된다면

성학대 문제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아동의 적극적인 대응 또한 쉽지 않아 매우 까다롭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자가 가해 행위자가 되기도 하지만 친인척이나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자는 물론 주변의 어른들이 의심되는 징후를 보이는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나 주변의 어른이라면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거나 개입할 경우 더욱 상황





너는 날  
속 쓰려고  
일부러 이러니?



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학대 이후 보호자가 아이를 지나치게 통제하려 들거나 이후 진술 등 아이의 대응을 강요하면서 아이에게 2차 학대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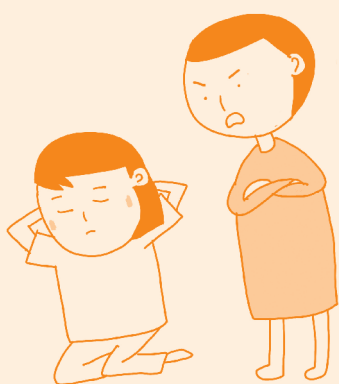
성폭력의 경우 알려지길 꺼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사건 조사와 접근에서부터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 같은 민감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기관이 해바라기센터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협업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성폭력, 성학대 사건 발생 시 해바라기센터가 주체가 돼 피해자 조사와 보호 절차를 일원화했습니다.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아동학대 담당 박진희 수사팀장 / 경기해바라기센터 조성국 상담원>

### 성학대/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의 징후는 어떤가요?

청소년의 경우 모든 관계를 단절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족과의 식사 자리, 구성원과도 함께 있는 자리를





너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회피하려 하죠. 사춘기 때는 식사가 줄고, 씻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고, 잠을 잘 못 자거나 악몽을 꾸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를 세심하게 봐온 보호자라면 즉각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 징후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아이가 진술하지 않으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요. 인지한 이후에 조사까지 6개월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미성년에 대한 범죄는 아동이 성년이 된 다음부터 공소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고 시점이 늦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신고가 있어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니 우선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증거를 확보해놓는 일도 중요합니다.

### 부모님도 힘든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보호자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센터에서는 부모님을 상대로 한 여러 심리 상담 지원도 제



공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아이의 심리를 조작하거나 의존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그루밍’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자의로 어떤 행동을 하려 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가스라이팅/그루밍**

---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은 아동학대는 물론 잇따른 가정 폭력과 데이트폭력 등 사례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습니다.

### **가스라이팅Gas Light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1938년 패트릭 해밀턴 연출의 스릴러 연극 <가스 라이트>에서 연유했습니다. 연극의 주인공인 남편은 집 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든 뒤 부인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면 이를 완강히 부정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탓합니다. 아내는 점

점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남편에 의존하게 됩니다.

아동학대는 물론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사례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부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지칭하면서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유사용어인 그루밍Grooming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 **그루밍Grooming이란?**

신체를 가꾸는 일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면서 성적으로 착취하는 현상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 혹은 그루밍의 피해자가 되면 당사자 스스로 그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가기에 무척 힘이 드는 만큼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스스로 이와 같은 심리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판단이 서면 혼자서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지인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이 나빠 침울해하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A



학생은 “엄마가 실망할까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B 학생은 “엄마로부터 혼날까 봐 두렵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보다 마음이 건강한 아이일까요?

다소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통상 전문가들은 B 학생의 마음이 더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A 학생은 자신의 학업과 관련한 사항에서 자신의 감정보다 부모의 감정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일견 성숙한 태도로 보이는 A 학생의 마음은 본능적인 자기 중심성이 일상 관계의 영향 등으로 억눌린 상태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네가 그따위로 행동하니까 아빠 엄마가 불행한 거야.”

혹시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법한 이 같은 표현들이 아이의 건강한 정신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간 전문가 굿네이버스 경기구리남양주

### 서태원 지부장과와의 인터뷰

서태원 현 굿네이버스 경기구리남양주 지부장은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2018~2020)을 맡는 등 오랜 기간 아동학대 대응의 일선에서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 아동학대 대응 업무에 몸 담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1998년 대학 재학 시절에 경기도 의왕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지요. 그래서 아동보호 단체인 ‘이웃사랑(현 굿네이버스)’에 지원하여 서울 송파 아동학대상담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 우리의 아동학대 정책 방향은 맞는 건가요?

지금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지요. 다만 우리 사회가 그간 아동복지 전반에 대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맡았을 당시 8명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담당했었어요. 그다음엔 16명이 두 군데로 나눠 관리하게 됐는데 ‘야, 이제 좀 살 만하지 않냐’ 할 때도 있었죠. 지금에 와서는 70곳 넘는 기관이 생기고, 경기도에도 관련 기관들이 많이 생겼는데, 아직도 사람이 담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 이후 순환직 공무원들의 기피 현상 등 문제는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봅니다.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뿌리내리기까지 필요한 과제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현 시장이 아동학대 문제의 디테일(세부

사항)까지 다 알고 있는 점이 도움이 되죠. 2019년에는 성남시와 저희 기관이 함께 시 공무원 전체와 시 의회 의원 전체,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어요. 1년 동안 5천 명 정도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교육이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공무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은 민원이에요. 한마디로 민원의 수준이 달라요. 아이를 빼앗긴 부모와 복지수당 얼마 못 받았다고 올려달라는 민원의 수준이 같을 수 없는 거죠. 가끔씩 변호사를 대동하여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담당자는 제대로 업무를 보기 어렵게 되죠.

민간이 담당하던 시절에도 아동학대 업무엔 늘상 민원이 따라다녔어요.

또 하나 문제는 학대 아동의 분리조치 시 수용할 시설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에요. 과거 민간에서는 아이를 재우데가 없으면 찜질방에서 재우거나 센터 놀이치료실,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버티기도 했어요. 지금은 과도기이다 보니 공무원 입장에서 시설을 찾아 아쉬운 소리



를 해야 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지요.

또한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행위자의 태도 개선이 중요해요. 임시 분리조치, 선고 유예, 교육이나 수강, 치료 명령 등 이런 대응책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공무원들에게 각각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경험이 쌓이게 되면 점차 나아질 것이라 봅니다.

**부모들의 인식 및 행동개선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요.**

**부모님들이 양육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아동학대와 직접적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신체적 학대의 도구가 골프채냐, 빗자루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물론 방임의 경우엔 저소득 가정에서 현저하게 많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강연에서 이런 예를 자주 들어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조금 졸리기도 하고, 때로 어떤 구간에서는 속도를 좀 내기도 하잖아요? 물론 지나치면 안 되죠. 저는 그 경계의 안쪽을 ‘정상 범주’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으로 체벌이 있었다면, 이걸 무조건 학대로 보고



범죄로 규정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부모가 어떤 신념을 갖고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생각을 강요할 때입니다. 이 경우 정상 범주를 넘어서 위험한 길로 치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최근 한 할머니가 친손자를 잠시 집에 두고 마트에 장 보러 외출한 뒤 5분 만에 화재가 나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일상의 작은 부주의,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방임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죠.

아동학대에 대한 주위의 관심과 신고, 그리고 교육 및 의료기관, 경찰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정인이 사건의 경우 당시 신고를 세 차례나 접수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서장 직위 해제 등 징계 조치가 취해진 뒤 경찰 태도가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확실한 아동학대 사례라 해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 이제 경찰이 먼저 분리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나 병원의 의료진 등



도 과거에는 숨기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이제 의식이 많이 바뀌어 신고율은 매우 높아졌어요. 예전에 남양주에서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우리가 분리조치된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지구대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 한 분이 가해 보호자에게 알려준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 경찰에게도 우리 컴퓨터 위치를 알려주지 않기도 했어요.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 의식이 높아져 시골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졌죠.

### 언제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안착하게 될까요?

2007년도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로 연수를 가서 물어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시스템을 잘 갖춘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대차게 저항하는 부모들은 존재하고, 이들 앞에서 제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현지 전문가들에게 그런 부모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물었는데 그들 또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부모를) 슬슬 달래고 어르다가 안되면 친권을 박탈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러가지로 속앓이 하기는 마찬가지죠.

공공화 전환 후 민간 전문가 일각에서는 “민간이 구축한

전문성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정 권한을 갖는 공공 시스템이 점차 체계를 잡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일손이 부족하고 요령이 없으니 시행착오가 있지만 곧 돌아갈 수 있게끔 물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2~3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사례관리를 맡은 민간기관들은 더욱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 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만 사례 관리를 하지만, 나중에는 무한돌봄이나 드림스타트, 공공돌봄체계나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이 사례는 너희들이 관리해’ ‘저 사례는 너희들이 관리해’ 하고 나눠줄 수 있겠죠. 이렇게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서비스 질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 그리고 사랑이야

아동학대의 여러 원인과 처방의 각론을

넘어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임을 재확인하고

회복탄력성과 강점 관점 접근이 유효함을

깨닫는다.



아동학대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으로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병리 현상입니다. 특히 성장기인 아동의 심신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학대는 명확한 범죄 행위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간 좋은 부모였나요? 아니면 문제가 많은 부모였다고 느끼시나요? 아직 미혼이거나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양육 현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너무 크게 자책하거나 걱정애 빠져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태도나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매우 소중한 변화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탈 행위로만 여겨 오셨다면,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어떠한 유형의 체벌도 아동학대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양육의 일상에서 누구나 빠져들 수 있으나, 이를 합리화, 정당화하기보다 뒤늦게라도 아이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내면화하고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과 같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은 결코 건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아이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겠으나 이를 무조건적으로 당연시하는 것도 더 이상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태도는 아니라 느껴집니다.

내리사랑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연시하는 것은 그다지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 받는 관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부모 자신의 가치관이나 바람을 아이가 받아들여 실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방향이 잘못 설정된 애정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탈선과 파국의 가능성도 큰 법입니다. 이 같은 태도가 과하게 되면 아이를 넘어 부모 스스







로 그 심리적 부담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건강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이면에는 두터운 신뢰와 믿음, 끈끈한 유대, 사랑의 마음이 자리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아이에게 주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전달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는 방식의 훈육을 해왔다고 느낀다면 아이와의 건강한 상호 관계가 이뤄져왔는지 한 번쯤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강요 대신 아이와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부모-자녀의 인연.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얽매임 없이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값진 인연을 제대로 가꾸고 만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든, 모든 문제를 녹여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일 것입니다. 진정 아이를 사랑하고, 제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이와의 화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



다. 사랑을 이유로 내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주세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스페인 교육학자 프란시스코 페레가 체벌의 무용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훈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두터운 인식의 벽을 체감합니다.

**체벌에 대한 인식 조사(2021. 4. 16~19. 전국 남녀 1천 명 대상,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2021. 5. 20 보도)**

- 아동학대 문제 심각, 자녀체벌금지법 찬성 74%
- 훈육을 위한 체벌 내 주변의 일 아니다 56%



-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고함을 지른 적 있다 77%
-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다 63%
- 맨손으로 아이의 손, 발, 엉덩이 등을 때린 적 있다 52%
-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 있다 51%
-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손, 발, 엉덩이 등을 때린 적 있다 41%
- 적절한 체벌은 아이를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다 64%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와 체벌 금지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실제 훈육을 위한 체벌의 효과를 긍정하고 있는 인식 또한 여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생각과 행동이 부모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는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생깁니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 많은 가정에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체벌을 통한 훈육의 방법을 택하곤 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두고만 볼 수 없기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택하게 되는 최후 수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한 동기에 따라 이뤄진 체벌이라도 학대행위의 범주를 비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아무리 강변해

도, 체벌은 양육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가장 쉬운 선택  
지이며, 본질적으로는 사랑을 가장한 ‘폭력’이라는 사실  
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번 넘어서면 돌아오기 쉽지 않은  
‘파국’의 경계선입니다.

사건 속 부모들은 하나같이 별스럽지 않은 이유로 아이  
에게 손을 댔다.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독감이 낫지 않은  
아들(당시 9세, 지적장애 3급)을 차가운 욕조에 방치해 숨지  
게 한 친모 A(31)씨. 범행 동기는 ‘동생을 깨우려 하고 시  
끄럽게 굴어 훈육하기 위해서’였다. 대전 유성구 집에서  
친모 B(38)씨가 아들을 매질해 죽음으로 내몬 이유는 ‘낮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범행을 종용  
한 B씨의 남자친구(38)도 “생활습관을 잡아주려고 했다”  
고 말했다. (한국일보 2021. 3. 20 “죽음의 매’ 된 ‘훈육의 매’…  
어쩌다 부모는 악마가 되었나”)

이런 범죄자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내심 불쾌하고 언짢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



없이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체벌과 한 번의 실수였던 나의 체벌은 어떻게 다른가? 아이를 사랑해서,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나? 그 최후의 수단은 아이를 올바르게 이끄는 수단이 될 수 있었나?

“어떤 부모라도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때로 손찌검을 할 수도 있어요. 부모 스스로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필요도 있어요. 중요한 점은 체벌의 당위성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일탈이고 잘못된 행위였음을 이후에라도 인정하고 기꺼이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상 범주’라고 할 수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정상 범주에 있는 가정은 잠시 궤도를 일탈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이를 벗어난 가정은 그러지 못합니다. 흔히 말하는 ‘회복탄력성’은 가족 전체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손찌검 한 번이, 꾸지람이나 강압적 표현 한 번이 우리의 건강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님



니다. 문제는 손쉬운 방법으로 자녀를 통제하에 두려는 부모의 거듭된 일방적 억압, 또 이를 ‘훈육’과 ‘사랑’이라는 말로 정당화하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강요와 다른 한쪽의 복종이 일상적인 관계로 자리매김하게 될 때 이 관계는 당장 갈등이 없어 보여도 절대 건강하다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회복탄력성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지나쳐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대표적 학대의 발단 혹은 동기가 학업과 진로 문제입니다.

얼마 전 세계적 호텔 체인 ‘힐튼’의 상속자이면서 스타 배우인 패리스 힐튼이 10대 시절 뜻밖의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고백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힐튼의 부모가 그의 교육을 위해 기숙학교에 사실상 강제 입학시키는 데 동의하면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2년간에 걸쳐 기숙학교 등 네 곳을 거치면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불면증 등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토로했습니다.



“직원들이 제 목을 졸랐고 뺨을 때렸습니다. 남자 직원은 제가 샤워하는 장면을 봤고, 저속한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병원 진단도 없이 제게 약을 먹였어요.” (2021. 10. 20. 미 워싱턴 의회 앞 기자회견서 패리스 힐튼 발언)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강압적 교육을 하는 기숙학교가 수천 개 존재하며 2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매년 입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고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때로 매우 힘든 과정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으며, 아이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면 우선 강제하는 것이 결국 아이를 위한 길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단 미국의 문제가 아님은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에 관한 한 ‘입시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들어온 우리나라입니다. 평소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온 부모들도 학업과 성적의 문제에 부딪히면 태도를 바꾸는 게 다반사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아이한테 욕심이 많았던 것 같고, 아이의 인생을 제가 잘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최고의 모습으로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이를 조금 더 다그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었구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할 때, A, B, C 대학을 가면 잘 살 수 있고 D, E, F 대학을 가면 나중에 힘들게 살게 된다는 식의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라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아이가 고3 때 원서를 쓰면서… 보통 6개를 썼거든요. D, E, F 대학의 원서도 쓰자고 하니, ‘엄마, 이제 나를 포기한 거야? 내가 힘들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벌겍게 충혈되면서 저한테 따지고 드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를 위해 100% 헌신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의 정서에 뭔가를 쌓이게 한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됐어요.” (50대, 성남 거주 전문직 여성)

자녀교육에 대한 과잉 관심은 미국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납니다.

지난 2015년 7월 27일 미국의 뉴욕타임스<sup>NYT</sup>는 명문

대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의 배경에 부모들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교’ 문화가 자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용어가 학생의 주변을 맴돌며 감동하는 ‘헬리콥터 부모’<sup>Helicopter Parenting</sup>, 학생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미리 제거해주는 ‘잔디 깎는 부모’<sup>Lawnmower Parenting</sup>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양면성, 아니 선악의 잣대로 양분할 수 없는 다양한 내적 동기들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주인공을 괴롭히고 가로막는 악인의 악행에 분노하지만, 동시에 그가 그러한 악행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내적 동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악’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악인은 현실적이지도 않거니와 실제 그런 평면적 도식의 드라마는 재미도 없습니다. ‘배트맨’ 이야기에서 ‘조커’를 빼면 김빠진 콜라 느낌이었죠. 배트맨 스스로도 선과 악을 내면에 함께 품은 어두운 영웅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아이가 긍정적인 면, 즉 선함과 아름다움, 풍요로움, 어울림 등 삶의 긍정적 요소를



고양하며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이 노력하게끔 독려하며 때로 아이가 부족함을 보일 때 다그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러한 부모의 뜻을 따르기도 하지만 때로 머뭇거리며 심지어 저항합니다.

세상의 어떤 아이도 즐거운 일만 겪거나 성공 가도만 달리지는 못합니다. 삶 속엔 끊임없는 경쟁의 요인, 우연적인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누구도 경쟁에서 이기거나 성공의 길만 걸을 수도, 불행한 사고를 피해만 갈 수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우정, 사랑, 부, 명예 등등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의 가치를 잡기 위해서 다른 가치를 내려놓아야 하는 선택의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삶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과 세상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동시에 공동

선을 위한 기본 의무를 다 하려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도  
건강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떠안아야 할 과제입  
니다.

하지만 부모라 할지라도 독립적 인격체인 자녀에 대  
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가  
삶 속에서 어떠한 가치에 우위를 둘 것인지, 그러한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과 실천은 전적으로 아이의 몫입니다.

그 선을 넘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관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나긴 전쟁을 시작해야 할  
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거쳐 마침내 도달하는 종  
착역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지옥도’일 수 있습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 ‘사랑의 매’는 없지만, ‘사랑의 힘’은 있다

하와이 북서쪽 끝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카우아이는 하와이제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울창한 숲이 무척 거대해서 <쥬라기공원> 같은 미지한 오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의 촬영 장소로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1950~60년대 이 카우아이섬은 대표적인 빈민지역으로 지독한 가난, 질병에 시달리던 곳이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였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 비행도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954년, 이 섬에서는 미국 사회과학 역사상 가장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를 중심으로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 관심을 가진 다양한 학자들이 참여했으며 ‘종단연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종단연구’란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연구 대상자를 계속 추적 관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연구진은 1955년 카우아이 섬에서 같은 해 태어난 698명의 신생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40년에 걸쳐 삶의 양태를 추적 조사하는 생애주기 범위의 종단 연구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한 인간이 태아의 시기부터 겪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나 사건 사고, 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환경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이 성인이 되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정신질환, 알콜중독, 만성적 가정불화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은 대부분 학습 부진, 약물중독,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순탄하지 않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너 교수는 예외적인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 사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였던 201명의 성장과정을 다시 분석한 결과 약 30%에 해당하는 72명의 대상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한 예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정적 환경 요인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는가 등 부정적 현상의 원인을 찾는 관점이 기존 심리학적 접근의 주류였다면, 인간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긍정적 요소로 시야를 돌리게 된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긍정적인 성장을 했던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아이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단 한 사람’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 아빠였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선생님, 친구들 간에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 그래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를 지속한 위너 교수는 역경을 이기고 고귀한 성취를 보여준 아이들에게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고, 역경을 이겨내어 결국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인간관계를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 개념화하였습니다. ‘회복탄력성’이란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로 ‘회복력’ 혹은 높이 되튀어 오르는 ‘탄력성’을 뜻합니다.

이 개념의 요체는 ‘긍정’의 힘에 있습니다. 긍정의 태도는 타인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당장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 그 자체로 아이 내에 긍정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탄력성은 특히 자존감과 깊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처럼 병리적 현상을 치유함에 있어 부정적 현상 자체보다 긍정적인 잠재성이 발현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된 관심을 돌리



고 있습니다.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입니다. 체벌을 통해 부모 혹은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동의 행동을 바꾸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적 영향을 아동에게 미치게 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아이들,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 아이들에겐 이 같은 자존감이나 회복탄력성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내세워 아이들을 구속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삶을 영위하는 힘을 박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강점 관점 해결 중심 접근을 사례 관리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접근 대신,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긍정적 접근을 뜻합니다. 2000년 이후 심리학계도 반사회성, 소시오패스 등 이상 심리에 대한 관심에서 긍정적인 면에 관심을 갖는 쪽으로 바뀌어 갔거든요. 과거엔 상담에 임할 때 ‘때리지 마라’고 했다면 이제는 ‘안 그럴 때는 언제예요?’라고 묻는 거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계속 나쁘게만 했다면 아이들도 못 살았을 거예요. 힘들게 하는데도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는지, 부정적인 면만 있는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윤석현 관장)

최근 언론(여성신문 2021. 9. 8)을 통해 소개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인 김을 씨 사례가 있습니다. 김 씨는 10대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7세 때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두 분이 잘 해결하라”며 돌아가 버렸고, 할머니는 “어찌됐니, 네가 참고 살아야지” 할 뿐이었습니다.

스스로 구제하는 길밖에 없다 여긴 김 씨는 성년이 된 뒤 아버지와 절연했습니다. 3년간 예술치유 프로그램 활동 등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했습니다.

굴레를 벗어난 김 씨는 3년 전부터 다시 조현병, 뇌병변으로 요양병원 치료 중인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폭력이 조현병 증세 등에서 연유했음을 이해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내면의 아픔을 딛고 이처럼 가해자까지 끌어  
안을 수 있게 된 건 회복탄력성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이  
란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나 피해자로 머물 수 없잖아요. 내 불행에만 매  
몰리지 않고 열심히 살래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겠죠.”

분명 긍정의 힘이 그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무서우면 도망쳐도 됩니다. 힘들어해도 돼요.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도 돼요. 그게 당신의 권리이고, 마땅  
히 그래야 하거든요. 괜찮아질 거라고 쉽게 말할 순 없어  
요. 분명한 건 좋아질 거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삶이 기  
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부모와, 폭력 가해자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소중한 자녀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렵듯이 부모를 느끼고 의지하기 시작한 당시의 느낌은  
또 어떤가요?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로 만나 한 가정을 이  
룬다는 건 그 자체로 축복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살다 보면 그러한 강렬한 첫인상과 무조건적인 애착  
의 마음은 무너지곤 합니다. 때로 어긋난 관계는 점점 더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일방을, 궁극적으  
로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끝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  
서 제기한 물음에도 답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훈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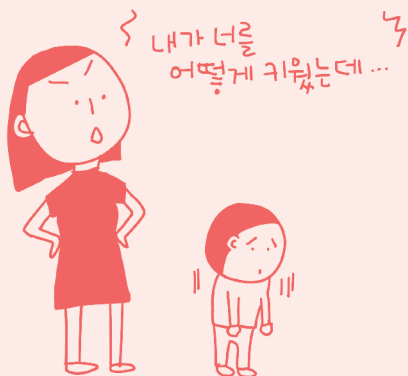
위한 체벌이나 정서적 학대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제가 그리고 싶은 명확한 답은 ‘아니다’입니다.

저 자신도 지금까지 마음속 혼란과 동요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체벌은 아동학대였을까? 아니면 올바른 가르침을 위한 훈육이었을까? 그렇게 묻는다면 대다수는 ‘올바른 훈육이었다’고 답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 삶 속에서 그분들은 늘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요, 늘 고마움으로 기억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가치관과 기준도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망설여지는 지점은 존재합니다. 맞아보고 꾸지람 받은 기억들. 나를 잘 되라는 메시지와 중첩된 그 경험은 나의 내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와 갈등을 빚을 때, 나 스스로의 가치관과 경험에 비춰볼 때 아이의 주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 기억들은 나의 뇌리와 온몸을 강력히 지배하는 사상이 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따위로 행동하려면 나가 살아.”

이성을 잃게 되면 더한 말이나 체벌, 그보다 더한 감정적 언사를 쏟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우리 기억 속에 각인된, 몸이 기억하는 행동의 신호는 강력합니다. ‘맞고 자란 세대’였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적어도 우리는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가능합니다. 그보다 어린, 우리 자녀 세대 입장에선 부모 세대의 생각과 행동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나 학대행위도 기본적으로 나쁜 행동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나와 다른 인격체이고 나와 다른 남이에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가 없다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일이라 생각해요.”



(오은영, 2021. 5. 27 KBS <대화의 희열> 출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오랜 규범으로 자리매김해온 ‘회초리의 문화’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체벌이 더 이상 시대의 변화상에 부합하지 않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의 평범성’을 질타한 한나 아렌트의 탁견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 같은 오랜 믿음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쁜 행동으로 판명된 바를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저변의 인식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각자 스스로 나서 그 나쁜 사슬의 고리를 끊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부모의 원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고정관념에 간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아이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아이와의 만남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가장 환희에 가득 찬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소중한 관계를 스스로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바로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부모님들께 전하는 편지

부모님들께,

2021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되기 전, 민간기관에서 아동학대 조사 경력이 있었기에 조직 차원에서는 경험 있는 직원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다시 이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 첫 전담공무원으로 일하던 선배들이 지금은 모두 부서를 떠났을 정도로 이 업무는 힘이 듭니다. 아이들과 그 보금자리인 가정을 지키겠다는 열정이 가득하다가도 일상에 부딪히면 체력적으로나 정신



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제도가 자리잡아 가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근무 환경도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속도엔 턱 없이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만난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가는 데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를 신고했다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배신감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힘들어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해자라고요? 부모 학대는 없나요?” 억울함과 당황스러운 눈빛에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경찰이 다 보고 갔어요. 왜 우리가 또 시청 공무원들을 만나야 하냐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돕고 싶다고.

꼭 한 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만나는 일은

그렇게 큰 일도, 부담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2021년 성남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00건이 넘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등원·등교 시간에 생기는 갈등, 핸드폰 사용 문제, 컴퓨터 게임 문제, 학교·학원에 가지 않는 문제, 숙제 문제, ADHD와 같은 특성이 있는 아동, 사춘기로 예민한 아동, 버릇없는 말투와 행동, 부부싸움….

아이들은 학대를 당하게 되면 신고하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보통의 부모들도 자칫 선을 넘으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일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고, 더 큰 아동학대로 비화하는 일을 피하기 위험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양육 환경이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리라 희망합니다.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는 일은 경찰과는 다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가정 내에서 관계 회복에 이를 수 있는 개선점을 모색합니다. 객

관적으로 상황을 돌아볼 계기를 제공하며,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대화를 통해 함께 고민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저희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 푸념도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중재자로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조혜미 드림.

조혜미 님은 대학 졸업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간 사례관리 상담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부터 성남시 아동보육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무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지만 아동학대 대응의 현장을 겪으며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나는 어떤 부모일까?

부모용 자가평가표: 부모가 자기 자신의 아동 권리 존중 및 아동학대 관련 인식도와 실천력이 수준을 자기 보고 식으로 점검해보는 도구입니다. (출처: 성남시제작 <지금 당 신은 훈육을 하고 계십니까? 학대를 하고 계십니까?>)

### 부모용 자가평가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구분	문항번호	2016년
정문항	1,2,3,4,6,9,10,12,13,14,16,18, 19,20,21,22,23,24,25	문항점수를 더하기(+)
역문항	5,7,8,11,15,17	문항점수를 빼기(-)
결과	정문항 점수는 더하고 역문항 점수는 빼서 나오는 총점의 구간을 확인	

## 취학 전 영유아 부모를 위한 자가평가표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영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위험한 물건이나 의약품을 놓아두지 않는다(칼, 성인용 가위 세제, 약품 등).				
2	영유아의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날씨, 상황에 맞게 실내 온도를 유지하며,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도록 한다.				
3	영유아가 쉬고 싶어 할 때, 언제든지 쉴 수 있게 한다.				
4	정해진 수면(낮잠)시간에 맞추어 억지로 재우거나 깨우지 않는다.				
5	손으로 영유아의 얼굴 머리 등을 톡톡 밀거나 때린다.				
6	영유아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등·하원할 때 따뜻하게 인사한다.				
7	손으로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양육자 간 싸움)을 한다.				
8	영유아에게 장시간 TV나 핸드폰을 보도록 하고 다른 일을 한다.				
9	영유아만 혼자 집에 있게 하지 않는다.				
10	영유아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적절한 응급처치 및 치료를 한다.				
11	영유아가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집 밖이나 화장실 등으로 보낸다.				

12	영유아의 잘못된 행동을 꾸지람하기 전에 설명이나 이유를 물어본다.				
13	영유아의 개별적인 실수와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14	영유아의 성별 및 출생순위, 발달 특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15	영유아가 거부하여도 안거나 얼굴, 입술 등에 뽀뽀를 한다.				
16	영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할 장소를 제공한다.				
17	영유아가 장난감 정리를 잘 하지 않는 경우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한다.				
18	영유아가 발달에 맞는 식사나 간식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한다(인스턴트 음식, 맵거나 짜게 조리된 음식 지양).				
19	영유아와 스마트폰, 유튜브 등을 보는 시간을 정하고 관심을 갖는다.				
20	영유아가 집 안의 물건을 이용하여 만들기 등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1	식사 시 무슨 음식을 먹을지 영유아의 의견을 물어보고 정한다.				
22	영유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23	놀이 활동 중 중단해야 할 때는 영유아에게 미리 알려준다.				
24	가정 내 지켜야 할 규칙은 영유아와 함께 이야기하여 정한다.				
25	영유아의 물건을 만지거나 확인할 때 동의를 구한다.				

## 결과지

### 인권 감수성 총만형 (90점 이상)

당신은 '인권 감수성 총만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영유아 권리 존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은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을 올바르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높은 인권 감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인권 존중형(80점 이상)

당신은 '인권 존중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영유아 권리 존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을 올바르게 지각하고 해석하여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인권 존중 발전형(70점 이상)

당신은 '인권 존중 발전형'입니다. 당신의 인권 감수성은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인권 감수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을 올바르게 지각하고 해석하여, 실천하려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인권 존중 향상형(70점 미만)

당신은 '인권 존중 향상형'입니다. 당신의 인권 감수성은 아직 땅 속의 씨앗과 같습니다. 인권 감수성을 싹 틔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일상생활 중에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학령기 아동 부모를 위한 자가평가표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자녀에게 가정의 위험한 물건(수리도구, 성인용 칼 등)이나 물질(세제, 화학약품, 의약품 등)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안내를 충분히 한다.				
2	아동의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날씨, 상황에 맞게 실내 온도를 유지하며,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도록 한다.				
3	아동기 학업과 관련된 과제를 하다가 쉬고 싶어 할 때는 언제든지 쉴 수 있게 한다.				
4	부모가 정한 수면 시간을 강요하지 않는다.				
5	손으로 아동의 얼굴, 머리 등을 톡톡 밀거나 때린다.				
6	아동이 학교에 등·하교할 때 따뜻하게 인사한다.				
7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다.				
8	아동이 장시간 TV나 핸드폰을 보는데 별 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9	아동이 혼자 장시간(반나절 이상) 집에 있게 하지 않는다.				
10	아동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적절한 응급처치 및 치료를 한다.				
11	아동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집 밖이나 화장실 등으로 내보낸다.				
12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꾸지람하기 전에 충분히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다.				



13	아동의 개별적인 실수와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14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 또래와의 비교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15	아동이 거부하여도 안거나 얼굴, 입술 등에 뽀뽀를 한다.				
16	아동이 가정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장소를 제공한다.				
17	아동이 자기 물건을 잘 정리하지 않는 경우 놀 수 있도록 한다.				
18	아동이 발달에 맞는 식사나 간식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한다(인스턴트 음식, 맵거나 짜게조리된 음식 지양)				
19	아동이 스마트폰, 유튜브 등을 보는 시간을 정하고 관심을 갖는다.				
20	아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물어보기, 자료 찾기 등).				
21	외식을 할 때 무슨 음식을 먹을지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고 정한다.				
22	아동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23	놀이나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때는 아동에게 미리 알려준다.				
24	가정 내 지켜야 할 규칙은 아동과 함께 이야기하며 정한다.				
25	아동의 가방을 열거나 서랍, 스마트폰을 확인할 때 허락을 받는다.				

## 결과지

### 인권 감수성 총만형 (90점 이상)

당신은 '인권 감수성 총만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 권리 존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은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을 올바르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높은 인권 감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동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능력입니다.

### 인권 존중형(80점 이상)

당신은 '인권 존중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 권리 존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을 올바르게 지각하고 해석하여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인권 존중 발전형(70점 이상)

당신은 '인권 존중 발전형'입니다. 당신의 인권 감수성은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인권 감수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을 올바르게 지각하고 해석하여, 실천하려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인권 존중 향상형(70점 미만)

당신은 '인권 존중 향상형'입니다. 당신의 인권 감수성은 아직 땅 속의 씨앗과 같습니다. 인권 감수성을 싹 틔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일상생활 중에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연락처

아동학대 신고 ☎ 112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 031-722-1391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휴대폰 사용 시 ☎ 031-756-1388)

경기해바라기 아동센터 ☎ 031-708-1375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2021. 11. 2 기준)

서울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02-2040-4242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02-974-1391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02-474-1391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02-422-1391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02-923-5440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02-842-0094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02-3157-1391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02-3665-5183~5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2-2247-1391
부산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1-791-1360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1-711-1391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1-715-1391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051-791-1391

대구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3-710-1391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3-623-1391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053-422-1391
인천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563-0153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515-1391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032-434-1391
광주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062-675-1391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062-385-1391
대전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2-716-2020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042-254-6790
울산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2-256-1391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052-245-938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아동보호전문기관 044-864-1393
경기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031-8042-7935
	구리시아동보호전문기관 031-523-3163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031-468-9821
	경기광명아동보호전문기관 02-897-1577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031-8009-0080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031-652-1391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031-316-1391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031-275-6177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031-402-0442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031-592-9818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031-227-1310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032-662-2580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031-966-1391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031-756-1391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1-874-9100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031-245-2448

강원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3-535-5391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3-766-1391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3-644-1391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033-244-1391

충북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3-731-3685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3-645-9078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043-216-1391

충남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1-546-1391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1-635-1106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1-734-6640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041-578-2655

전북 전북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063-715-1371  
전북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063-635-1139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063-734-1391  
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063-852-1391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063-283-1391

전남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061-870-7200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061-332-1391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061-285-1391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061-753-5125

경북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4-455-1391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4-284-1391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4-853-1391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4-745-1391

경남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055-713-1390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055-322-1391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5-757-1391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055-244-1391

제주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064-732-1391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064-712-1391~2

## 아동학대 사건처리 관련 용어

### 응급조치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를 하는 것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 긴급임시조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이 직원 또는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1. 퇴거 등 격리 2.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하는 것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 임시조치

임의적 임시조치 :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경찰관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필요적 임시조치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임시조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 보호처분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보

호관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상담처분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 피해아동보호명령

판사는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접근금지·친권에 대한 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할 수 있음, 보호처분과 달리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서 명령임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임시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것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 피해자 국선변호사

검사가 아동보호사건 또는 형사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처벌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규칙 등을 근거로 지정하며,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즉각분리 (일시보호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조사 중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 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는 제도를 말함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 이 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중원경찰서 김가은 경사

중원경찰서 김재원 경장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윤석현 관장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정원구 상담원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강소민 치료사

도담치료그룹홈 김미순 시설장

도담치료그룹홈 홍정선 치료사

경기해바라기센터 박진희 수사관(남부경찰청 소속 아동학대 전담)

경기해바라기센터 조성국 상담원

굿네이버스 서태원 경기구리남양주지부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김민선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서울대 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

유현아 변호사

성남 중앙동어린이집 이해원 원장

성남거주 어머님 5분

그 외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많은 관계자 및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속하게 신중하게 상세하게  
그리고 사랑이야**

© 성남시, 2021

**펴낸날** 1판 1쇄 2021년 12월 24일  
**펴낸곳** 성남시 아동보육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전화 : 031-729-2941 팩스 : 031-729-2949

**발간등록번호** 71-3780000-000185-01

**기획제작** (주)헤이복스  
**책임진행** 윤미경  
**인터뷰·글** 김중배  
**디자인** 류지혜  
**그림** 유천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성남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한다.

너희의 아이는 너희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이니.  
저들은 너희를 거쳐서 왔을 뿐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또 저들이 너희와 함께 있기는 하나 너희의 소유는 아니다.

너희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너희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칼릴 지브란의 시, 「아이들에 대하여」 중에서

“징계권이 없어진 걸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의 매'를 기억하는 이들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뒤늦게 자신의 체벌 등에 대해 후회하게 되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